



국내 이주민 선교를 위한 **DIASPORA** 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 이주민을 대변하는 신문
* 이주 선교사, 선교단체,
지역교회를 아우르는 신문
*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 관련
전문 정보와 소식의 플랫폼

제 3호

2021년 9월 1일

월간 발행



이주민 선교의 핵심 ‘환대’

당신의 이웃을 환대하고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현지인들의 눈물겨운 모습이 전 세계 모든 대중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우여곡절의 탈출 이후에도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기에, 더더욱 힘든 여정이 될 것이라 미루어 짐작해 본다. 자발적이든지 비자발적이든지 이주에 몸을 맡겨야 하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모든 시대에 걸쳐 일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민족을 환영하셨다. 그리고 이주민들을 특별히 환대할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23:22) 즉, 일부러 다 베지 않고 떨어진 밭알조차 줍지 않게 함으로 나그네, 곧 이주민이 손쉽게



지역교회가 주변 이주민을 환대함으로써 이주민은 하나님의 선하심 확인하게 돼



게 마음 상하지 않고 취하도록 배려하라는 것이다. 베들레헴 보아스의 밭에 들어온 모압 여인 롯의 이야기는 이러한 이주민을 환대하는 내용의 좋은 예이다.

이주민 선교의 핵심 중의 하나는 환대이다. 지역교회가 주변 이주민을 대상으로 환대를 한다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주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주민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은 주님의 중요한 가르침이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마 25:35)라고 말씀하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주민에게 환대하는 것이 주님을 경배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지역교회마

다 환대의 사역을 펼쳐야 할 것이다.

낯선 이, 곧 타자를 환대하는 일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다. 이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환대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대로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교회의 환대로 이주민들이 삶을 재건하고 새로운 땅에서 터전을 세울 수 있는데 필요한 힘과 안정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주민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기도 하고, 대부분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이기에 이 상황 속에서 이주민 사역의 연속성을 찾아야 한다. 또한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들 중에 리더십을 키우고, 이주민들이 새로운 환경

에서 다시 지역교회를 섬기도록 준비시키는 일이 이주민 선교의 주요 과제다.

이주민을 환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전 거리이지만, 신앙의 영역에서 믿음의 본질을 반영하기도 한다. 다니엘 그루디에 의하면 이주민의 영적 여정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이주하신 것처럼, 이주민들은 고향의 터전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특별히 여겨 주신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주민들이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만큼,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필요가 있다. 이 일은 어느 순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호 관계 속에

서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을 때, 자기희생과 겸손히 우선시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자화로 가는 길이다.

교회 내 많은 사람의 공통 관심사가 가난과 가정의 문제이다. 이 영역에서 믿음과 삶이 통합되려면 기도과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환대의 상호작용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주민을 환대함은 이주민, 망명신청자, 난민들이 새로운 땅에서 삶을 재건하고 세우도록 돕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다. 동시에 낯선 사람을 환대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랑, 겸손, 선교, 헌신 등 호혜의 걸음을 함께 걷게 할 것이다.

▶12-13페이지에서 계속



‘비대면 추석’ 맞아 이주민 사역도 비대면

“따뜻한 환대와 사랑의 교제로 영혼 추수하는 기회”



2019 하비스트 행사 기념사진. ©온누리M센터

코로나와 함께 맞이하는 두 번째 추석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이 대세가 될 전망이다. 교회와 선교 단체의 추석맞이 이주민 사역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예전처럼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다채로운 현장 추석 프로그램은 사라졌지만, 온라인을 활용한 예배와 기도, 교제, 나눔 사역은 멈추지 않고 올해도 준비됐다. 그리하여 이주민들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달래주고, 예수 안에서 치유와 회복, 성장과 연합을 이루도록 도울 예정이다.

온누리M센터, 9월 21일 ‘2021 하비스트’ 진행

온누리M센터는 21일 비대면으로 열리는 ‘2021 하비스트’

트’ 사역을 위해 8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언어권별로 이틀씩 15개 나라 이주민과 각 예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하비스트 릴레이 기도’를 진행 중이다. 매일 기도 영상과 나라별 기도제목은 SNS(유튜브 채널 ‘Onnuri M Center 온누리M센터’) 등을 통해 나누어 이주민 공동체와 중보기도자들이 기도의 정성을 쌓고 있다. ‘2021 하비스트’ 당일에는 각 나라 예배 공동체가 미디어와 SNS를 통해 미리 제작한 나라별 설교와 찬양, 기도로 주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예정이다.

온누리M센터의 추석 연합 집회인 ‘하비스트’는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 15개국 700~800여 명이 2박 3일간

함께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교제를 나누는 자리였다. 그러나 작년에는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열리면서 VR 장비를 이용한 찬양집회로 개편됐다.

올해도 4단계 방역 지침이 이어지면서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 커뮤니티별로 행사를 기획하고, 예배 공동체별로 설교자를 세웠다.

온누리M센터는 이번 행사 주제를 ‘King’s way’(욥 23:10)로 정한 이유에 대해 “욥의 길은 비록 고난의 길이었지만 결국 영광으로 이어졌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도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그 길이 결국 왕의 길이였다”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먼 타국의 나그네로 사는 힘든 여정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왕의 길을 걷고 있다는 믿음이 참석하는 모든 이주민 안에 자라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위디국제선교회, 9월 19~20일 비대면 추석 프로그램 진행

위디국제선교회는 올해 추석 프로그램을 9월 19일 오후 4시부터 20일 저녁 9시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행사 하루 전인 18일 토요일 오후에는 미리 장만한 음식과 선물을 카메룬 성도들의 가정으로 배달하고, 일정 중 비대면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만찬을 나누게 된다. 말씀은 2019년 카메룬으로 역파송한 현지 목회자인 브라이언 멘고트(Bryan Mengot)가 전한 후 함께 기도할 예정이다.

가족 단위 및 개인별 토너먼트로 열리는 성경퀴즈를 통해 푸짐한 상품도 제공한다. 이주민 자녀들에게는 ‘미션완수’ 프로그램에서 한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패시브 인컴(Passive Income)’ 특강을 통해 기독교적 경제관을 심어줄 계획이다. 이주민 부모들은 주변 한인 독거노인과 청소년 가정에 음식과 선물을 나눠주며 기쁨과 사랑을 전하게 된다.

위디국제선교회의 추석 명절 연휴 프로그램은 25년째 1박 2일간 성령부흥회와 신앙의 진보를 위한 특강, 만찬, 영화 감상과 게임 등 다양한 프

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추석 프로그램의 내용과 순서 등은 카메룬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명절 선물은 산소망교회 한인 성도들이 생필품 등을 마련하여 나눠왔다. 무엇보다 이주민들은 명절 때 독거노인, 청소년 가장 등 더 어려운 처지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구제를 실천하여 언제나 베풀어 주는 자가 아닌, 베풀어 받는 자로 훈련받아 왔다.

위디국제선교회는 “이주민들이 1박 2일 만이라도 폭 쉬며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며 “팬데믹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글로벌센터, 추석 2~3일 전 생필품 및 방역물품 나눔 배달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는 코로나 방역이 강화된 상황에서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이주민들에게 생필품 및 방역물품 나눔 배달 사역을 한다.

경기글로벌센터는 추석 연휴 2~3일 전 파주, 동두천, 보산동, 안산 단원구 원곡동, 인천 서구 가좌동, 인천 서구 석남동 등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 나이지리아, 케냐, 콩고 등 주로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게 쌀, 치약, 칫솔,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나눠줄 예정이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Feed The Children (사)한국위원회는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로서 식량 지원, 영양 관리, 재난구호, 교육프로그램, 시설 지원 등으로 복한을 포함한 국외 사업을 행하며, 국내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0억의 인구가 충분한 영양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Pandemic으로 1억 3천만 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피드더칠드런 한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 전화 031.381.1474
http://feedthechildren.or.kr



끝나도 끝나지 않은 전쟁 아프가니스탄의 비극

보복의 유혈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을 것, 수많은 난민 발생으로 시험대 오른 인류애

글 이창배 편집국장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적 상황을 알리며,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주소를 담아 낸 사진 한 장. 이제 막 공항에서 이륙한 미군 수송기 바퀴를 붙잡고 결사적으로 버티던 사람 셋이 공중에서 떨어져 내리는 사진을 보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다. 결국, 탈레반은 지난달 15일 수도 카불에 진입해 대통령궁을 장악하며, 20년에 걸친 미군과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선언했다. 이는 공식적으로 탈레반 무장조직의 통치 복귀이며, 20년간 이어져 오던 미국 주도 연합군의 아프간 주둔을 종식시킨 역사적 사건이다.

마치 1975년 4월 30일 '사이공 함락'을 대자비 하듯이 베트남 인민군의 공산주의 세력이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을 점령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냉전을 배경으로 북베트남은 소련과 여러 공산주의 동맹국들의 지원을 받았고, 남베트남은 수십만 명의 미군을 포함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서구의 지원을 받았지만 결국 패전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단순히 한쪽의 승리가 결정 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반대진영에 섰던

사람들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이 뒤따를 것이 자명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관계자는 탈레반 점령 후 1만8,000명 이상이 카불 국제공항을 통해 아프간을 빠져나갔다고 밝혔고, 아직도 카불공항에는 탈출을 원하는 사람들로 극심한 혼란을 빚고 있음이 외신을 타고 연일 전해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유엔난민기구 통계에 따르면 올해에만 탈레반의 카불 재장악 이전까지 내전으로 인해 집을 잃은 사람이 5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아프간 내 실향민은 약 3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아프간은 올해 국가 전역에서 심각한 가뭄과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다. 유엔세계식량계획이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간인 1,400만 명이 굶주림을 겪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인접 국가에 수용된 난민이 220만 명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유럽국가들 가운데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나라들로 온도차도 뚜렷이 엇갈린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인도주의 측면에서 난민을 수용



하겠다는 반면에 그리스와 같은 나라는 난민 유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도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국내 수용' 문제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궜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만큼 그 위상에 맞는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와 '이슬람 포비아'(Islamophobia: 이슬람 Islam + 포보스 Phobos, '이슬람'과 그리스어로 '공포'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단어)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5일 법무부 기자회견을 통해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규모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긴 하지만 그동안 정부·기관의 아프간 현지 활동에 관여했던 이른바 '조력자'들에 대해서만큼은 최대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아프간인들은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지위로 국내에 들어왔다. 이들 390명은 2001~2014년 아프간에 파병된 한국군을 보조했거나 2010~2014년 재건 임무에 참여한 의료인력, 기술자, 통역자 등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단기 비자가 발급된 상황이지만, 이후 장기 체류비자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한국리서치가 국내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난민 수용 찬성 33%, 난민 수용에 반대 53% 비율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과 20·30세대, 보수, 중도층의 난민 수용 반대 의사가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64%), 범죄 등 사회 문제 우려(57%) 등이 꼽혔으며, 난민 수용 찬성 이유로는 난민 인권에 대한 존중(74%)과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책임(56%) 등이었다.

특히 이번 아프간 난민에 대한 논란이 커진 이유에 대해서는 탈레반에 의한 2007년 한국인 선교단체의 집단 납치와

2명의 한국인 살해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며, 2010년대 들어서는 득세한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세력으로 인한 유럽에서 각종 테러 소식들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력이 증폭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회가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교회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가 아프간 난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하고자 할 때 교회는 온 인류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의 실천 차원에서 교인들 가운데 있는 여러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며 성명을 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하라. 국제 사회는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착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며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비롯한 난민 인권, 평화를 위해 활동해 온 106개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이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하고 돕는 일에 교회가 나서야' 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교회의 선교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기 1, 2년 선교사 모집

GC(Global Challenge) GA(Global Action)

사역지 : 남미, 로고스호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등

지원 자격 : 만 18세 이상, 세례 후 6개월 이상 된 자 문의 : 031) 698.2372

지원 마감
9월 24일(금)

허입 시험
10월 2일(토)

허입 면접
10월 12-15일(화-금)

합격 발표
10월 18일(월)



WWW.OM.ORG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잠재력

환대·친절·연민으로 이민자들을 선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어
한국교회, 교구적 사고방식에서 선교적 사고방식으로 전환 기대

Dr. 테레소 까지노(Tereso Casino)



·미국 가드너웹대학교 교수
·북미 디아스포라 교육자(글로벌디아스포라네트워크) 의장
·국제디아스포라선교센터(ICDM) 부회장
·위디국제선교회 국제 이사
·전 햇빛트리니티대학교 교수

한국은 과학과 기술의 영향, 꾸준한 이주의 흐름, 포스트모더니티의 영향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일문화 사회로 남아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은 자신의 문화적 규범의 렌즈를 통해 ‘외부인’을 바라보지만, 사회의 문화적 변수를 다루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를 살피는 태도는 단일문화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원주의 사회 또한 자체 평가 시스템과 규범을 적용하여 타문화를 면밀히 조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일문화는 디아스포라 이주민을 향한 선교사역의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낙관적인 제안은 지난 30년 동안 단일문화주의 가운데 오히려 한국의 많은 교회와 선교기관이 이주민들에 대한 선교사역에 점진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게

된 것을 관찰한 근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단일문화 경향은 다섯 가지 주요 이주 상황에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1950~1953년), 재건과 산업화(1954~1988년), 올림픽 이후 기간(1989~1992), 산업연수생 프로그램(1992~2006), 고용허가제(2006~현재)입니다. 그리고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에 여러 이주민이 체류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이주민 상황에 맞는 전도와 진정한 제자도를 위한 기회의 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포항시에 있는 교회의 초청으로 저는 1992년 여름에 처음으로 한국 땅에 발을 내디뎠고, 세계선교에 관한 일련의 전략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계지도를

보고 잠재적인 선교사역을 할 국가를 찾고 예비 계획과 전략을 세우며 해외에서 사역하기를 열망하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전국을 여행하고 한국의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면서 저는 도처에 이주민의 존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선교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선교신학’이 한국을 떠나 타국에서만 선교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이웃과 지역사회의 이주민 공동체에서 전도와 제자훈련의 과업을 완수할 기회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과거 배타주의적인 선교 마인드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문화는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자민족 중심적이고, ‘나는 다른 문화를 싫어하고 두려워한다’는 외국인 혐오적인 두 가지 관습적인 태도를 이주민들에게 보이곤 합니다. 일부 한국인은 이러한 태도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단일문화를 정체성을 보존하며 생존, 성장, 창의성, 지역 사회 개발 및 책임 있는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적 도구’

의 필요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대다수 시민은 단일문화를 전통으로 여겨 보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읍니다.

세계화는 KFC, 아웃백, 스타벅스, 맥도날드와 같은 서구 브랜드 및 비즈니스의 도래를 촉진하지만, 현대 한국 사회는 여전히 전통적인 사회 정치적 윤곽, 음식, 문화, 미술 및 음악, 언어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 세대는 서구의 기풍과 규범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일상 생활은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패턴과 형태를 계속 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1988년 이후, 한국의 단일적인 사회는 이주민 공동체의 존재가 증가하는 것을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일문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이중문화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독특한 민족적 정체성과 유산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문화주의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방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 선교 사업 과정의 일부로 문화적 통합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환대, 친절, 연민으로 이웃의 이민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선교적 열정, 헌신, 에너지 및 자원으로 유

입하는 이주민들을 환영할 때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초국가적 사역 네트워크, 사회 경제적 연결, 다문화 지식과 자원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세계화되는 환경의 변화를 수용함에 따라, 교구적 사고방식에서 선교적 사고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교구 사역은 자신의 문화 공동체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선교적 교회는 민족 언어적 경계를 넘어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선교적 임무는 집단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20)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한국 성도들은 그들 가운데 살고, 공부하고, 일하는 이주민들을 복음화하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일 때 제자훈련을 받고 특정 사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체류 기간이 끝나면 각자의 고국과 세계 다른 지역에서 선교의 재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연합하여 세계선교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VISION 전주비전대학교

한손에 성경과 한손에 기술을
전문인 선교사를 양성합니다.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하나님의 비전으로 전문인을 양성하는 전주비전대학교
선교와 기술을 융복합한 전문인선교사 양성과정
국제협력기술과가 열방을 품습니다.

신입생 모집 안내

입학정원 10명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자

자격 조건

·교회 및 선교단체 추천자
·해외 거주 선교사 추천 외국인
·선교에 헌신된 국내외 선교사

전형 일정

·수시1차 : 9.10(금)~10.4(월)
·수시2차 : 11.8(월)~11.22(월)
·정시 : 12.30(목)~2022.1.12(수)

- ▶ 국제협력기술과 장학금 지원
- ▶ 선교 훈련 및 1인 1기술 전공제도로 전문인 선교사 양성
- ▶ 졸업 후 선교단체·NGO를 통해 장·단기 선교사 파송
- ▶ 협력 단체 및 기관
 -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ANM)
 - 위디국제선교회(Withee Mission International)
 - 국제개발 NGO 더멋진세상
 - 국제구호기구 Feed the Children, Korea

학교문의 우) 55069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235 / 국제협력기술과 063-220-3990~1 김미선 교수 010-7979-7743 / 선교지원처 063-220-3611 김영선 목사 010-7369-8550 / 홈페이지 http://www.jvision.ac.kr

“이주민이 삶을 통해 예수님 영접하도록 도와주세요”



인도 출신 라빈 목사와 이란 출신 사라 아민 사모

수원역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이주민이 오간다. 상기된 얼굴로, 정신없이 통화하며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이주민들의 고단하고 힘겨움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그러나 주일의 경우는 거리의 표정이 확연히 바뀐다. 예쁘게 차려입은 웃고 밝은 표정, 가벼운 발걸음, 한눈에 봐도 교회에 가는 모습이다. 물어보니 수원제일교회를 가는 중 이란다. 내친김에 교회에 연락해 보니, 인도에서 온 현지인 목사에게 자랑을 한다. 이에 직접 인도인 라빈 목사를 만나 보았다.

▶자신에 대한 소개와 현재 사역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란의 사라 아민(Sara Amin)과 결혼한 인도의 라빈 부라(Raven Burra)입니다. 저는 수원제일영여교회(SJEC)에서 담임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SJEC는 수원제일교회의 국제지부입니다. 현재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 중이며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SJEC는 매주 16개국이 모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대부분이 학생이고 매주 토요일에 수원에 있는 여러 대학에서 전도하며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 사역, 보육 사역, 교육 사역, 이주민 선교의 4개 부문을 관장합니다. 한국선교 외에도 아내와 저

어떠한가요?

“2019년 인구 조사 기준으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인도인은 13,236명입니다. 한국의 인도인은 학생, 사업가, 엔지니어, 박사 후 연구원, 교수, 외교관, 선교사 등입니다. 이들의 종교는 대략 힌두교 70%, 이슬람교 15%, 기독교 10%, 기타 5%로 추산됩니다.

팬데믹과 비자 및 이민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도인이 한국에 이민 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인도인 이민은 인도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혜택을 줍니다. 인도 사람들은 IT, 과학 연구, 프로그래밍, 컴퓨터 과학 및 무역에 재능이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틀림없이 한국의 성장에 이바지할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서 온 라빈 목사를 만나다

한국교회, 특정 국가 넘어 선교의 경계 확장하길
‘왜 하필 나야?’ 대신 ‘왜 내가 아니야!’가 되어야

는 인도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으며, ‘We Will Worship Ministries’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효과적으로 사역하고자 합니다.”

▶한국 내 인도 이주민들의 상황은

수 있습니다.”

▶이주민 사역자로서 이주민 선교를 하는 한국 교인들에게 조언해주신다면?

“이주민 선교에 헌신하는 한국교회에 대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이고, 둘째는 이주민을 교회로 인도하여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도하기 위해 이주민들에게 손을 내미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행히 한국에 있는 이주민의 98%는 이미 그들과 대화하는 사람이나 주변 교회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요 초점은 이주민들이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또 다른 제안은 선교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특정 국가로 선교를 제한하는 여러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적에 대한 지원을 거부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 세계를 구할 수 없기에 우리의 부르심 앞에 정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

리는 예수님을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소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오는 사람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왜 하필 나야?’ 대신 ‘왜 내가 아니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사역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미래의 사역 계획을 몇 가지 주셨는데, 두 가지 필수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 온 선교사로서 얼마 전 시골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국 농촌 사회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올바른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가 선교여행을 위해 인도에 여섯 팀을 데려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팀을 인도로 데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이 신문을 읽는 분들 가운데 인도에 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승혜 기자
seunghyelee@naver.com

200 NATIONS LEADERS' MISSIONS CONGRESS I

200개국 기독교 지도자대회

일시
2021.11.2(화) - 4(목)

11.2(화) | 11.3(수) | 11.4(목)

성경 | 기도 | 자녀

계신 곳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땅 끝까지

(행 13:1-3, 막 16:15)

시간과 공간, 그리고 언어를 넘어 생방송
매일 3시간, 3일간의 온라인 진행
기독교 신앙의 본질 회복과 실천

1차 등록 | 1인당 10,000원 (2021. 8. 31 까지)
2차 등록 | 1인당 15,000원 (2021. 9. 1 ~ 30)
3차 등록 | 1인당 20,000원 (2021. 10. 1 ~ 31)

등록링크: <http://bit.ly/200awmj>

송금계좌 : 1005-204-166902(우리은행) (사)에이더블유엠제이선교회

주 최 AWMJ 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네팔 선교사가 보는 한국 사회의 네팔 이주민

결속력 강해 어딜 가든 네팔 공동체 형성하고
기독교인도 해외 어디서든 예배 공동체 꾸려

네팔 기독교 역사를 말할 때, 대부분 네팔이 기독교를 최초로 접한 것은 17세기 중반 이탈리아의 카푸친 사제들이 인도로부터 네팔을 통해 티베트에 왕래하던 시기로 알고 있다. 1990년 기독교가 크게 성장하기 전에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분위기였다. 네팔에 최초로 생겨난 교회들은 그 규모나 형태가 가정교회의 모습이었다. 강한 결속력을 가진 가정교회가 네팔에서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여러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네팔 사람들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 네팔 사람들은 대가족 중심의 문화이다. 둘째는 힌두 사회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서로 운명 공동체로 대처하기 때문이다. 네팔의 교인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경험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먼저 예수 믿는 과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게 된다. 힌두인 부모 형제와 함께 지내지 못한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가족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을 네팔의 교회들은 자기의 부모 형제처럼 돌보고 함께 지낸다. 그러므로 네팔의 교회는 예수 믿는 과정

에서부터 강한 결속력을 가진 식구 같은 관계가 형성된다. 같은 공동체로서 서로 돌아보고 도와주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 이러한 가정교회의 결속력은 네팔의 많은 교인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집에 사는 것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네팔 역시 대중 매체를 통해 세계화의 영향을 받았다. 젊은이들이 주변 나라들을 향해 눈을 뜨기 시작했고, 유학생 또는 근로자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국에만 해도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해 온 네팔 근로자들이 5만 명이 넘었다. 코로나로 코리안드림이 주춤해졌지만, 그들의 열망은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네팔인들은 새로운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먼저는 한국과 비슷한 대가족 문화와 결속력이 있다. 그들은 어디를 가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교제 영역을 넓혀 가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예배처를 만들어 예배 공동체를 꾸려나가고 있다. 이는 마치 한민족들이 세계 어디를 가나 코리아타운을 만들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과 유사하다. 네팔 사람들의 이러한 성향이 네팔 기독교의 부흥에 뿌리가 되고



어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 네팔인들이 피크닉 프로그램에 참석한 모습.

있다고 본다.

네팔의 젊은이들은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한국으로 오려면 취업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도 한국어능력시험 3~4급을 통과해야만 올 수 있다. 필자가 하는 사역 중 그들을 돕는 사역으로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 어학원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젊은이들이 현재 한국에 많다.

필자는 선교사역으로 보면 마지막 기간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역이 진정으로 끝나는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이다. 그래서 당연히 이주민 디아스포라에 관심이 크다. 현재 국내에는 이주민 디아스포라를 위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 그분들이 해 온 사역들

은 크고 대단하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다. 필자는 그분들이 이루어 놓은 사역에 현지에서 보고 느낀 것과 경험들을 조금 보태고 싶다. 그래서 언젠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 이주민 근로자들이 귀국해서 잘 정착하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도록 하고 싶다. 이 일을 위해서 다양

한 연합을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고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경쟁의식이 아닌 경험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시너지를 낼 좋은 기회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이주민 사역 파트너
diasporanews.kr

피터 김 선교사



1993년 네팔 장애인 선교를 위한 전문인 선교사로 지교회 파송을 받았다. 국립트리부번대학교 사범대학에

특수교육학과를 설치하고 전문인력 양성 사역을 하다, 2004년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M. Div.)한 후 목회자 선교사가 되었다.

현재는 네팔 교육부 특수교육 TF Team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자비량 선교를 위해 시작했던 사역들을 모두 BAM(Business As Mission)을 위해 구조조정을 하고 선한 BAMer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EXTMOV KOREA

Solutions for Diaspora Missions

NextMove exists to serve the global missions movement to more effectively engage in diaspora missions.

www.nextmove.net

이주민 선교 용어의 개념과 이주 현상

이주민 선교 다이제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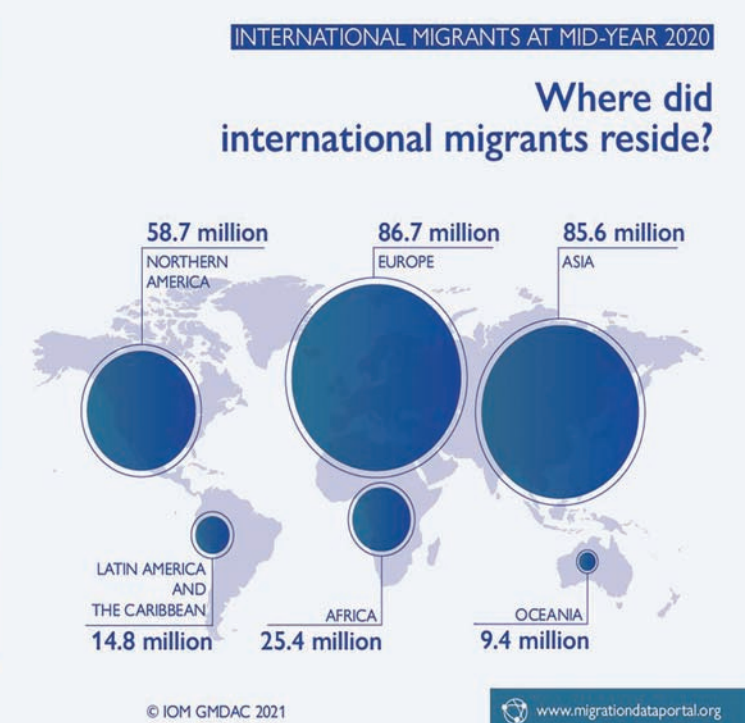
“이주자’(migrant)란 대상의 법적 지위, 이동의 자발성 여부, 이동의 원인, 해당 국가 내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국경을 넘는 중이거나 국경을 이미 넘은 자, 또는 국내에서 거주지를 떠나 이동 중이거나 이동한 자를 의미한다.”

이주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더 많은 기회와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동해 왔기 때문이다. 21세기 즈음하여 이주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래서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총장인 윌리엄 스윙(William Swing)은 “이주는 21세기 메가트렌드”라고 말한다.

‘이주’(migration)란 국경을 넘었거나 특정 국가 내에서 사람이나 집단이 이동하는 것으로, 그 기간과 구성, 원인에 상관없이 어떤 형태의 인구이동이든 포괄하는 개념이다. 난민, 이재민, 경제적 이주자, 그리고 가족 재결합 등의 목적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이주용어사전 제2판). ‘이주자’(migrant)란 대상의 법적 지위, 이동의 자발성 여부, 이동의 원인, 해당 국가 내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국경을 넘는 중이거나 국경을 이미 넘은 자, 또는 국내

에서 거주지를 떠나 이동 중이거나 이동한 자를 의미한다(IOM 2016).

사람들의 이주 원인은 다음과 같다. 국가별로 점점 벌어져가는 삶의 질과 임금의 차이, 곧 ‘경제적 요인’은 이주자들을 정착국으로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은 역할(pull-factor)을 한다. 또 무능한 정부, 부패, 그리고 좋은 교육체제와 건강 관련 시설의 부재는 국제이주를 촉진하는 ‘국가행정적 요인’이다. 선진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동력 부족은 개발도상국의 노동력 과밀과 맞물려 인구의 이동을 일으키는 ‘인구학적 요인’이며, 내전이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종과 종교 등에 따른 차별로 인해 자유를 되찾고자 하는 소망에 따른 ‘분쟁의 요인’도 있다. 이밖에 지진이나 산업재해, 홍수 및 가뭄 등으로 인한 ‘환경적 요인’, 해외에 사는 가족과 친지들이 촉매 역할을 하여 이주를 촉진하는 ‘다국가적 네트워크 요인’도 있다.



2020년 유엔 국제이주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이주자들은 2억 8천만 명을 넘어섰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주의 최신 동향은 다음과 같다.

1) 이주의 전 지구화: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이주 흐름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나아가 이민 유입국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매우 다른 국가에서 온 다양한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2) 이주의 가속화: 현재 거의 모든 주요 지역에서 국제 이동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주의 양적 팽창은 정부 정책의 시급성과 어려움을 심화했다. 정부 정책은 국제이주를 막거나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주자를 송환시킬 수도 있다.

3) 이주의 차별화: 대부분 국가는 노동이주, 난민이주, 영주이주 등과 같은 이주 유형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유형을 동시에 겪고 있다. 이주의 차별화는 국내 및 국제 정책 수립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4) 이주의 여성화: 과거에는 대부분의 노동이주와 난민 이동은 남성이 주도했고, 여성은 단지 가족 재결합의 범주에서 다루어졌을 뿐이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여성은 노동이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다양한 이주 유형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5) 이주의 정치화: 국내 정치, 양국 관계, 지역 관계,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안보정책이 국제이주의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다. 이주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지구적 거버넌스(governance)는 물론 유입국과 경유국, 그리고 송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6) 이주 변천의 확산: 이는 전통적인 이민 송출국이 경유국이나 이민 유입국으로 전환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폴란드, 스페인, 모로코,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터키, 한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이주 변천의 다양한 단계를 겪고 있다.

이러한 이주 현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 약 200 개국으로부터 25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정주와 비정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주민들의 95% 이상이 북음화율이 매우 낮은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이주는 한국 교회에 주어진 선교의 기회이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또 하나의 선교지임이 틀림없다.

이제 세계는 점점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교회가 실제로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이슈이고 선교적인 접촉점에서도 중요한 전환이 될 것이다.

김혁준 기자
loke0114@gmail.com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유학생

난민

4가지 영역

KWMA 2021 평창포럼

Forum on Transition of Mission Outreach toward the Migrants

이주민 선교로의 사역전환 포럼

2021년 10월 4일(월) 11시 ~ 5일(화) 오후 1시 30분

컨싱턴호텔 평창

참가대상

1.이주민 선교에 관심과 계획이 있는 목회자 및 교회 선교 담당자

2.사역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는 선교사

등록비 : 3만 원(부부등록시 5만 원)

문의 : 김봉운 선교사 (010-9874-4430)

계좌 : 국민 029301-04-143479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

이주민 선교의 키워드 ‘통전적 섬김’

선지자들의 삶과 가르침, 신약성경에 분명히 나타난 통전적 사역의 개념

박정곤 목사



· 고현교회 담임목사
· 고신총회 세계선교후원교회협의회 대표회장
· 미전도종족선교연대(UPMA) 이사장

지 역교회가 이주민을 섬길 때, 통전적인 접촉점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경의 대위임령과 큰 계명(마 28:19~20, 막 22:37~39)은 사람들의 영적 요구와 육적 요구를,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 모두를 강조합니다. 즉, 선교는 사람의 필요를 통전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대위임령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큰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성경은 교회가 통전적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서로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분리된 접근 방식을 통해 육체적, 영적 필요를 모두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독특하고 상호보완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전체 삶을 지지하기 위해 함께 융합되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예언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반면에 아론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돕는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의 통전적 사역은 사사, 선지자, 제사장의 세 가지 역할을 모두 맡았습니다. 이러한 각 직위는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모두 융합되어 이스라엘의 공

동체 생활을 강화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통전적 사역의 개념은 선지자들의 삶과 가르침에서도 분명합니다. 호세아는 수직적 관계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묘사하고 그것을 추구할 것을 옹호했습니다. 이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마 4:23)라고 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은 별개의 기능이었지만 그것들은 모두 예수님의 전체 사역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자기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마침돈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거지에게 몸을 돌려 정중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마침 제가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돈을 줄 수 없네요. 매우 미안합니다!” 그러자 그 거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뇨.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에 당황한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고맙다니요. 나는 당신에게 돈을 안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거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물질적인 것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꿈을 좇아 이 땅을 찾은 우리 주변의 이주민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의 정을 느낄 수 있는 환대일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우리의 관심과 사랑, 친절, 격려, 희망, 믿음과 같은 환대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환대를 통해 꿈을 찾아 이 땅에 온 우리의 이웃 이주민들에게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통전적 섬김을 가르치고 확증
이주민들에게는 우리의 관심과 사랑, 친절,
격려, 희망, 믿음과 같은 환대가 필요해

야는 이스라엘이 수평적 관계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변호하라”(사 1:17)라는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분리되어 있고 다르지만 모세, 아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예시된 구약의 가르침은 어느 쪽 관계도 서로 없이는 성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신약성경 또한 통전적 사역 개념을 확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도와 사회적 행동을 결합한다는 개념을 구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초대교회의 삶은 그 주제를 이어갔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1세기 교회의 연대기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통전적 사역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했음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전도)과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일(사회활동)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 전략은 교회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작가 레오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도둑을 청하는 거지를 만났습니

이주민 사역 파트너
diasporanews.kr



하나님의 기쁨과 자량이 되는 교회

고현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www.gohyun.org

담임목사 / 박정곤

- 부목사 / 변건식 최윤갑 조생준 강성관 방영진 김준웅 서 훈 최기천 김승윤 문항기 강민환
- 기관목사 / 김성운 김옥천
- 장로 / 심종화 정해춘 강현성 유진욱 이상호 박달수 원용삼 옥영섭 천경을 신득수 이창진 정달진
- 협동장로 / 임낙연 윤정영 · 무임장로 / 김진욱 김성현 · 원로장로 / 옥기철 옥금석
- 은퇴장로 / 김윤탁 박광윤 옥치안 이홍일 강영식
- 강도사 / 하진호 · 전도사 / 안복희 강영애 · 사역자 / 천영숙 오정미

2021년 고현교회 선교사 현황

- 파송선교사 21가정: 김경용, 윤보석, 황정대, 박진욱, 박변화, 고덕현, 윤상혁, 김 후, 김숙자, 조영태, 이철진, 김현철, 손상호, 윤 옥, 이진호, 김광선, 이임호, 김상민, 조운태, 박양제, 정보애
- 협력 후원선교사 213가정 25인 · 협력 후원 현지인 사역자 31가정 · 협력 후원 선교단체 34기관

■ 경남 거제시 계룡로 11길 17-7(고현동) 전화 : 055-635-5511, 팩스: 055-637-5513



Part I 상황(Situation) 에피소드

글 문창선 편집인

23개 나라 위디국제선교회 지부 설립
103명의 근로자 출신 선교사 역파송

중 암동의 필리핀 사역은 너는 내가 필요치 않았다. 아니 그들은 여전히 원했지만 나 스스로 원치 않았다. 내가 없어도 그들은 잘해나갔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들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역의 또 다른 목표이다. 하나님께서는 안양에 교회를 허락하셨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재정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딸 성은이의 자동차 사고 보험료로 마련되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언젠가 기억할 수 없는 때에 요청했던, 예수원에서 만든 십자가가 설립 예배에 맞추어서 도착했다. 절묘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을 주셨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위하여 안양에 세워진 위디국제선교회와 산소망교회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쉼터요, 예배당이 되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가나, 콩고, 나이지리아, 베냉, 토고, 카메룬, 몽골, 네팔, 인도네시아, 중국 한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

“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위하여 안양에 세워진
위디국제선교회와 산소망
교회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쉼터요,
예배당이 되었다...

다. 그들은 나라별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지역별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였다. 주경야독하듯 저녁이면 위디신 학교에 모여 신학을 공부하며 자국민 선교사의 꿈을 키워갔다. 4년간의 과정을 끝내고, 한국 안의 자기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 사역을 하거나 본국으로 역파송되어 자국민 선교사로서 효과적인 사역을 했다. 때로는 제3국으로 보내져, 그곳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23



젊은 시절 문창선 목사가 당시 화상으로 입원한 필리핀 형제들을 심방하며 위로하고 있다.

개 나라에 지부가 세워졌고, 103명의 근로자 출신의 선교사들이 역파송되어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펼쳐가고 있다.

필리핀촌의 화재

1994년 2월, 필리핀 근로자들이 밀집해 있는 공장 주변에 화재가 발생했다. 성도들이 머물던 건물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난 것이다. 위낙 다닥다닥 붙어있는 벌집형의 주거환경이라 낮과 밤 근무를 교대하고 곤히 잠들어 있을 성도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걱정이 됐다. 가슴 졸이며 불이 난 곳을 일일이 문을 열어가며 성도들의 안전을 확인하였다. 그 가운데 웃이 타고 위험한 상황도 직면하였지만,

다행히도 성도들 가운데 다치거나 피해는 없어 주님께 감사하며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외국인 성도들의 마음과 행동들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유난히 수줍음이 많고 마음을 열지 않는 필리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양파’라고 칭한다. ‘양파’란 까도 까도 계속 똑같은 모습만 보이는 양파처럼 좀처럼 속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오랜 기간 출석을 거부하던 형제들이 하나둘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사역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좀처럼 거리를 좁히지 않던 자매들도 먼저 눈인사를 하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끼리 더욱 의지하고 단합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자기들을 위하여 위험한 화재 현장을 오가며 애를 썼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했다. 양들을 위한 목자의 당연한 일인데, 그들에게는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나 보다. 이 일로 공장 지역의 필리핀 근로자들이 협력하게 되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으니,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도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 29:11)

▶(연재)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주안대학원대학교
JUAN INTERNATIONAL UNIVERSITY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선교중심의 세계적인 대학
온전한 헌신, 온전한 교육, 온전한 신앙

주안대학원대학교(JIU)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능력을 갖춘 맞춤 교육을 통해 선교사와 “선교사를 지도하는 선교리더”를 양성하는 초교파 선교전문대학원입니다. 선교학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박사학위(Ph.D)와 석사(MA, Th.M) 학위 과정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본교 홈페이지 www.jiu.ac.kr를 참고하시거나
교학처 (032) 446-52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4번길 11(주안대학원대학교)

‘이주’, 나라별 종교적 구성을 변화시키다

디아스포라는 종교 인구 통계의 다양성에 영향
이웃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디아스포라 선교학 2장은 ‘이주, 디아스포라, 그리고 다양성(인구학적 접근)’을 다룬다. 저자인 줄로(Gina A. Zurlo)는 보스턴 대학의 문화, 종교, 세계 문제 기관의 연구원이자 고든콘웰신학대학의 세계기독교학센터의 어시스턴트 디렉터이다. 특히 저자는 세계 종족 분류학, 세계 종교 분류학, 그리고 두 분류학을 평가하는 자료 수집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종교적 디아스포라들과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연구를 이 장에서 표현하였다.

줄로는 ‘글로벌 디아스포라: 개관’(Robin Cohen, Global Diasporas: An Introductio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7)의 종교적 디아스포라에 관한 9가지 공통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원래 고향에서부터 종종 깊은 상처를 가지고, 두 곳 이상의 외국 지역으로 흩어짐 (2) 일자리를 찾거나 무역, 더 나아가 식민의 포부를 쫓기 위한 고향으로부터의 확장 (3) 고향에 대한 집단적 기억과 신화, 위치·역사·업적을 포함 (4) 추정되는 조상 전래의 집에 대한 이상화와 그것의 유지·보수·안전·변영, 심지어는 그것을 창조하기까지의 집단적인 헌신 (5) 집단적인 동의를 얻은 귀향 운동의 발달 (6) 특수성, 공동의 역사, 그리고 공동의 운명에 관한 믿음에 근거하고, 오랫동안 유지된 강한 민족 그룹 의식 (7) 호스트 사회와의 좋지 않은 관계가 수용성의 부족, 또는 그룹에 또 다른 재난이 닥칠 수 있는 가능성 암시 (8) 다른 나라에 정착한 동족들과의 공감과 연대 의식 (9) 다양성에 대한 관용이 있는 호스트 국가 안에서 독특하고 창의적인 풍요로운 삶의 가능성 등이다.

전 세계적인 사람의 이동은 20세기의 뚜렷한 특징이며 21세기에도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다. 정착지의 경제, 정치, 사

종교적 다양성 지수 (RDI), 1919 & 2010						
대륙/지역	1910년 인구	1910년 RDI	1910년 주 종교	2010년 인구	2010년 RDI	2010년 주 종교
아프리카	124,541,000	0.28	민족종교	1,031,084,000	0.38	기독교
동아프리카	34,658,000	0.31	민족종교	342,595,000	0.45	기독교
중앙아프리카	19,445,000	0.09	민족종교	124,978,000	0.26	기독교
북아프리카	30,322,000	0.24	이슬람교	199,620,000	0.12	이슬람교
남아프리카	6,819,000	0.50	민족종교	58,803,000	0.33	기독교
서아프리카	33,296,000	0.37	민족종교	305,088,000	0.53	이슬람교
아시아	1,026,693,000	0.37	중국민속종교	4,165,440,000	0.53	이슬람교
중앙아시아	7,550,000	0.07	이슬람교	61,694,000	0.23	이슬람교
동아시아	554,135,000	0.37	중국민속종교	1,593,571,000	0.79	불가지론
남아시아	338,168,000	0.36	힌두교	1,681,407,000	0.38	힌두교
동남아시아	93,859,000	0.50	불교	597,097,000	0.41	이슬람교
서아시아	32,982,000	0.26	이슬람교	231,671,000	0.13	이슬람교
유럽	427,044,000	0.10	기독교	749,308,000	0.36	기독교
동유럽	178,184,000	0.20	기독교	296,183,000	0.29	기독교
북유럽	61,473,000	0.04	기독교	98,795,000	0.42	기독교
남유럽	76,828,000	0.04	기독교	154,712,000	0.28	기독교
서유럽	110,558,000	0.03	기독교	190,618,000	0.50	기독교
라틴 아메리카	78,254,000	0.09	기독교	596,191,000	0.15	기독교
캐리비안	8,173,000	0.04	기독교	41,625,000	0.27	기독교
중앙아메리카	20,806,000	0.02	기독교	160,546,000	0.08	기독교
남아메리카	49,276,000	0.12	기독교	394,021,000	0.16	기독교
북아메리카	94,689,000	0.07	기독교	346,501,000	0.38	기독교
오세아니아	7,192,000	0.08	기독교	36,659,000	0.41	기독교
호주/뉴질랜드	5,375,000	0.06	기독교	26,773,000	0.51	기독교
멜라네시아	1,596,000	0.13	민족종교	8,729,000	0.15	기독교
미크로네시아	89,400	0.30	기독교	498,000	0.14	기독교
폴리네시아	131,000	0.01	기독교	660,000	0.08	기독교
세계	1,758,412,000	0.27	기독교	6,916,183,000	0.45	기독교

출처 : Todd M. Johnson, ed. WCD (Leiden/Boston: Brill, 2014년 9월 방문)

회 구조, 그리고 종교 등 다방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이주민들은 한 나라 혹은 한 지역에 새로운 종교를 들여오기도 하고 기존 종교의 변형된 유형을 들여오는 경우도 있다.

19세기 식민시대에는 소수의 유럽인이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에 정착했다. 20세기 말에는 이 지역의 현지인들이 서양 세계로 이주해왔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이슬람교, 힌두

교, 불교 등의 종교가 기독교나 그 어느 독립적인 종교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했다. 유럽에서는 이슬람교도의 대규모 이주가 영적 환경을 완전히 바꿔 놓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특히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서 주요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 구소련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1990년 이후로 기독교가 매년 급감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인, 독일인, 우크라이나인들이 타국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21세기 들어 이주의 추세는 이미 각 나라의 종교적 구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2100년 이 되면 인구의 90% 이상이 하나의 종교를 믿는 나라를 찾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특히 주요 대도시에 상당수의 이민자와 난민이 유입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새로운 경계를 넘는 사람, 발상, 문화의 이동은 많은 사회에서 어느덧 새로운 일상(the new normal)이 되었다. 종교적 디아스포라들과 종교적 다양성 증가가 주는 의미는 분명히 크다. 다문화 사회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은 더 이상 그 부모나 태어난 나라의 종교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세계는 다른 종교에 대한 지식을 얻고 또한 공손히 대하도록 하는 중요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그리고 불교도가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에 사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웃의 세계관, 전통, 믿음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그들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과 정답게 지내기 어려울뿐더러, 복음을 전하는 접착점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다른 종교 신도들을 향한 환대와 우정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웃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주민들과 그들의 종교를 환영하는 글로벌 사회를 만드는 것 또한 필수적인 과제다.

〈정리: ‘디아스포라 선교학’ 번역자 문창선〉

▶(연재)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이방인들을 환대함으로 성장하는 교회

환대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 안에서 ‘영생과 은혜’를 얻을 수 있어



발행인 황덕영 목사

국제디아스포라선교센터
(ICDM) 설립이사장
새중앙교회 담임



신약성경에서 언급한 ‘대접’이라는 단어는 ‘환대’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나그네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 13:2)는 말씀이 그것을 확인하여 줍니다. 이처럼 이주민을 보살피고 지원하는 실체적인 도움은 성경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고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그리워하는 곳입니다.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은 더욱더 고향이 간절할 것입니다. 이주민들의 대부분은 가족이 함께 이주한 분산보다는, 가족끼리 나누어진 이산의 이주가 훨씬 더 많기에 가족이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훨씬 클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연휴에 지역교회들이 주변 이주민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잔치를 베풀곤 합니다. 비록 팬데믹의 상황으로 예전과 같이 이주민들을 대접하며 위로하기가 어렵지만, 여전히 교회와 성도는 여러 방법을 모색하여 이주민들을 섬기며 대접하여야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언급한 ‘대접’이라는 단어는 ‘환대’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나그네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 13:2)는 말씀이 그

것을 확인하여 줍니다. 이처럼 이주민을 보살피고 지원하는 실체적인 도움은 성경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땅에 떨어진 수확물은 줍지 말아야 했는데, 이는 단기 체류자와 이주민들이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레 19:9~10, 23:22). 이 말씀은 수확기에는 가난한 이주민들을 위해 고의적으로 농작물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신명기 24장 19~22절은 수확할 때 잊어버리고 온 것들을 찾으러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고까지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이웃에 대한 행위와 관련된 법률로서,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하며,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주민들을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룯기 2장 1~17절에서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던 룯과 나오미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비슷한 관

례였습니다. 룯에게는 레위기의 이방인 과부 및 고아의 권리에 관한 말씀(레 19:9~10, 23:22)과 신명기의 곡식을 모으는 권리에 관한 말씀(신 24:19~22)이 함께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 등 궁핍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을 제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신 10:18).

이것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주민들과 고아들에게 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신 10:15) 이주민들도 사랑하셨습니다(신 10:18~19).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여야 합니다(요일 4:19~20). 특히 추석 연휴와 같은 명절 때 이주민들을 더욱 환대하고 대접하여 고향의 향수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하겠

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는 디아스포라, 즉 이주민들의 출현으로 새로운 공동체로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교회가 유대인으로만 존재했다면, 결코 지속하거나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환대를 통해 믿음을 갖도록 하였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교회에 서신을 보냈습니다(갈 3:28, 참조 골 3:11, 고전 12:13). 각 사람은 환대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더 나아가 예수 안에서 ‘영생과 은혜’를 얻습니다.

이주민들은 다문화적인 정체성 이상의 것을 제공하는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창조주와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이라는 더 큰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교회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주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돕고, 지원하는 대접의 손길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역교회에 이 필요성을 알리고 함께 이주민들을 환대하는 일에 참여토록 권장해야 합니다.

이주민 사역 파트너
diasporanews.kr

Relief

Based on the nature of Sorok's clientele, the foundation provides temporary relief which varies from food, shelter and medical assistance. Sorok also launch short-term emergency relief projects under this program in times of calamity or disaster in the Philippines.

Rehabilitation

Sorok provides a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rogram for social integration and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especially for persons affected with leprosy and homeless street people

SUFI CORE PROGRAMS

Sorok encourages and help individuals to be empowered mentally, physically and spiritually through the following projects.

Empowerment

In line with the vision of the foundation, this program was created to ensure sustainability of the beneficiaries, the organization and even the helping mindset of the Filipinos.

Sustainability

SOROK UNI COMMUNITIES

- NATIONAL CAPITAL REGION
- SAN ANTONIO QUEZON PROVINCE
- REGION IV-B OCCIDENTAL MINDORO
- MCS PASOLOBONG, ZAMBOANGA CITY

기획특집 : 환대 (Welcome)

한국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교제 가운데 '환대'를 풍성하게 누리는 각국 자매들

‘추석’(秋夕)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나아가서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니 달이 유난히 밝은 명절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는 속담이 있듯이 추석은 명실상부한 연중 최고의 날이다. 특히 풍성하고 신선한 온갖 좋은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자녀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은 추석 하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정경이기도 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존재 자체로 환영하고 환영받는 모습이 넘쳐나는 즈음에 한국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가족들과의 교제 가운데 ‘환대’를 풍성하게 누리는 각국의 자매들을 만나 보았다.

아로마 향 가득한 치유와 위로의 딸 ‘누르자말’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누르자말은 한국 생활 10년 차답게 능숙한 한국어 실력으로 다정한 인사를 건넸다. 한참을 마주하여도 좀처럼 낯선 이방인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던 그녀는 원래 이슬람 신도로, 은행에서 일하다 만난 고객을 남편으로 맞이하였다. 누군가의 주선도 없이 우연히 만난 연인이 결국은 인생 최고의 만남인 하나님과 만남으로까지 연결해주는 통로가 될

줄 그랜 상상하지 못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르자말은 이슬람교도의 절차에 따라 이태원의 중앙 사원에 가서 이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고 싶었으나, 남편이 함께 교회를 간 후에 다음 주에 이태원을 가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나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 버렸다. 크리스천도 아니었던 남편에 의해 이슬람 신도 한 사람이 그 어렵다는 개종을 한 셈이다.

“사원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아랍어를 주문처럼 외워야 했고, 금방이라도 벌 받을 것 같은 무서움과 공포가 저를 압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처음 가본 교회에서는 모두가 밝은 표정으로 손뼉을 치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제겐 참으로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구토가 나고 머리가 아프더니, 나중에는 무엇인지 모를 자유로움과 해방감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때 이후로 두 번 다시 사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누르자말은 몇 년간 찬양할 때마다 쏟아지는 눈물로 애를 먹었다고 한다. 키르기스



누르자말은 얼굴 사진 대신 자신이 만든 아로마테라피 제품 사진을 보내왔다.

스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한국에 있을 때, 믿음의 동역자들로부터 받은 위로와 사랑의 이야기도 담담히 전해주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자 금세 눈시울을 붉혔다.

“한국에서 가장 저를 환영해준 사람은 남편을 제외하곤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점점 연세가 드셔서 움직이시는 것도 힘들 텐데 저를 반겨주시는 어머니가 언제나 가장 고맙고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시댁 가까이 살면서 일 주일에 한 번은 찾아가서 청

소하고, 마트에 가서 장을 봐서 요리해드릴 수 있어 더없이 행복하다는 누르자말은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며느리이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 일로 힘든 남편의 편안한 쉼을 위해 아로마치료를 공부하고 얼마 전 자격증까지 취득하였다. 이젠 돌아갈 고향도, 부모님도 돌아가셔서 안 계신 그녀에게는 한국에서의 가정은 유일한 안식처이고, 새로운 터전이 되었다.

한국의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와서 신앙의 1세대를 세운 누르자말은 그동안 자신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던 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알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선물하는 사람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녀가 머무는 곳곳마다 영혼을 치유하고 위로하며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리라 기대한다.

결코 넘어지지 않는 오후 기 ‘오기’

“어머니는 제가 한국으로 출국할 때 집안에 나쁜 귀신을 쫓아내 준다는 향과 금잔을 챙겨주셨어요. 늘 절에 가

서 기도하던 어머니는 이제 교회 다니는 딸 때문에 스님도 못 만나겠다며 불평 아닌 불평을 하십니다. 한동안은 페이스북에 올린 몽골어 성경 말씀을 못마땅해하시더니 이젠 ‘좋아요’도 눌러주며 제게 기도 제목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아마도 저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분이기때 제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몸소 느끼신 듯합니다”

몽골에서 온 오기의 한국행은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였다. 이혼 후 심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딸에게 어머니는 잠깐 머리를 식히러 해외 유학을 다녀오는 것이 어떻지 물어보았다. 그동안 방송국에서 성우 생활을 하며, 한국어 영화와 드라마를 많이 더빙했던 터라 친근한 나라 이미지에 큰 고민 없이 한국에 첫발을 디디게 되었다. 유학생 신분에서 불법체류자가 되기까지 한국 땅에서 보낸 9년의 세월은 절대 녹록지 않은 시간이었다.

한국에 와서 주간에는 학교에 다니고, 밤에는 공장을 다니며 생활하다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노래방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서 울고 있는 한

아에타 인준 프로그램 Accreditation Program

1. 훈련/수료 프로그램 (Training / Certificate Program)
2. 디플로마 프로그램 (Diploma Program) - 준 학사 학위
3. 학사 및 신학사 과정 - B.A, B.Th, B.Cm, B.Miss, B.Ce, B.Min, B.Coun 등
4. 대학원(Graduate School) 과정 - M.Div/M.Div equi., M.A/M.A equi., Th.M/Th.M equi., D.Min, D.Miss 등



선교지 신학교 인준단체 아에타 AETA

Association of Educators and Trainers in All-tribes

AETA는 선교 현장에서 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교들을 설립하고 운영하던 한인선교사들이 고 김활영 선교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선교사들이 2004년 6월에 신학교육 포럼과 총회를 시작하면서 “AETA”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였습니다. 그 동안 선교지 신학교의 학위 인준과 발전을 위해 협력해 왔으며 2021년 8월에 AETA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신학교 인준, 지역학 연구를 통해 70여 개의 컨소시엄과 인준 신학교 회원단체들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 김의원 박사, 부대표: 김연수 박사, 이사장: 윤형중 박사)

한국본부 연락처
아에타의 법인
후원계좌

서울사무실 02-585-2447 / 010-6241-5324(김연수)

사단법인 에이스정보통신연구원 (대한민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단법인 등록 제 1977-01-0001호) <AIIS : AET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AETA법인계좌 : 사단법인 에이스정보통신연구원 - 국민은행 732401-00-003972

사단법인 에이스정보통신연구원 : 국민기업은행 928701-01-195419

AETA일반계좌 : 김성찬(AEA) 우리은행 1002-061-011335

HomePage : www.aeta.kr

E-mail : admin@aeta.kr

NAS자료실 : nas.aeta.kr



오기는 올겨울 출산을 앞두고 있다.

남자를 만났고,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 되었다. 아버지와 이혼 후 홀로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매우 편찮으셔서 힘들어하던 그 사람은 헤어진 남편과 매우 닮아서 유난히 애뜻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결혼까지 이어졌다. 만남의 장소 탓인지 시대 식구들은 무척 못마땅해하였고,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 사람으로 그와 가족이 되었다.

그러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꽤 행복했다. 6년 만에 아이가 생겼고, 올겨울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 9년 전 몽골에 두고 온 딸과의 재회도 준비하고 있다. 영상을 통한 만남이지만 딸아이는 한국 아빠와의 만남을 몹시 기대하고 있고, 남편 역시 몽골 딸의 한국어 교육을 응원하며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몽골에서 무너진 가정은 한국에서 새로운 가정으로 세워지는 중이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선은 불법 체류 가정들을 섬기고 통역 봉사를 하고 싶고, 좀 더 공부해서 가정폭력 속에서 자란 아이들과 관계가 깨어진 부부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몽골에서 있었으면 결코 몰랐을 것을 한국에 와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가난, 힘들음,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없고 배가 고프는 것보다 영혼이 궁핍한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가슴 아픈 어린 시절의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매우며, 이젠 세상의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맘껏 노래하고 싶습니다.”

오기의 꿈꾸는 눈과 격양된 목소리에서, 과거 불법체류자라는 환영받지 못한 신분으로 한국에서 숨죽이며 살아왔던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준 남편의 사랑에 힘입어, 그녀 또한 그 사랑을 나누며 살고자 한다. 어렵고 힘든 몽골 친구들을 식사 자리에 언제나 앞장서서 초대하는 남편은 맘이 무척 따뜻한 사람이다. 아쉽게도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일에 소극적이기에 남편의 신앙은 늘 오기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했다.

나누면 배가 되는 사랑, 하나가 되어 ‘진달래’

이국에서 부모님도 모시지 못하고 올리는 결혼 예식을 하루 앞둔 신부의 맘 한쪽은 얼마나 허전하고 착잡할까? 혼자 이국땅에서 치르는 결혼의 분주함 속에서도 흔쾌히 온라인 인터뷰에 응해 준 예비 신부 진달래(가명)를 만났다. 천진난만한 앳된 모습의 진달래는 이름도 표정도, 심지어는 목소리마저도 인생의 굴곡이라고는 없었을 것 같은 맑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신앙을 가지게 된 과정부터 우여곡절이 많은 여정이었다.

대학교 1학년 때 마냥 한국



진달래 부부

어가 좋아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던 진달래에게 캠퍼스에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찾아간 곳이 CCC 선교센터였다. 한국어를 할 수 있다면 그곳이

성경을 가르치든, 예수를 가르치든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기보다도 마냥 친절하고 다정한 언니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저 즐겁기만 하던 날들이었다.

그러던 진달래에게 A국 국가안전국 사람으로부터 감시와 회유가 시작되었다. 자신도 모르게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무섭고 두렵던 진달래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마 10:19~20)는 말씀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세상의 어떤 권력도 두렵지 않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되었다. 진달래는 학교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다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자 그동안 알고 지낸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오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삶은 감사함의 연속이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했고 어디를 가든 모두가 환영해주었다. 특히 신앙의 롤모델을 보여준 친구는 같은 기숙사를 사용했던 룸메이트였다.

“언제나 저를 존중해 주셨던 친구였어요. 아주 사소한 것을 결정할 때도 ‘언니,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라며 물어봐 주었고,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제가 실수라도 하게 되면 부끄럽지 않게 가르쳐 주곤 했었어요. 삶으로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준 동생이었어요.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받았고, 저도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한국교회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요. 아이들은 저를 무척 반가워해요. 재미있는 게임도 가르쳐주고 식사 시간이면 항상 같이 밥 먹고 가자며 밥을 권하기도 해요. 저를 100% 믿고 따르는 느낌을 받아요. 그럴 때면 참 행복해요.”

한국에서 다름을 인정해주며 존중해 준 친구 덕택에, 한 없이 자신을 따르는 귀염둥이 제자들 덕분에 이들을 통해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듯하다. 이제는 대학에서 만난 친구가 인생의 동역자가 되어 결혼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둘이 되어 함께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그날을 위해 진달래는 동화책 작가를 꿈꾸며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한국 아이들에게 중국어도 가르치며 말씀도 공부한다. 그녀는 한국에서 만난 수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밀거름되어 복음이 들 어가지 않은 척박한 곳에서 귀히 사용되는 그 날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조훈정 기자
chohunjung@hanmail.net

**When you drink
Lost Tribes Coffee Co.**

coffee, it helps us share the hope of
Jesus with Jewish communities and provides
much needed medical care.

Order today at <http://bit.ly/lcfeeco>.

Ethiopia authentic coffee

LOST TRIBES
COFFEE CO.

오률크제한가족센터 사역소개

“다문화 가정의 회복은 각 구성원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오률크회의 총체적 다문화 가정 사역 결혼이주여성, 남편, 그리고 자녀 대상

글 임혜림 목사



오률크회 국제사역부 담당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다문화 가구원은 109만 명으로, 총인구의 2.1%를 차지한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나의 가정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제 다문화 가정 사역은 거부할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역이다.

오률크회는 2004년, 이미 수많은 이주민이 우리 곁에 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였다. 교회는 가장 먼저 이웃이 된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이는 지

금의 총체적 다문화 가정 사역의 출발점이 되었다.

결혼이주여성 사역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은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익힐 틈도 없이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낯선 한국에 오게 된다. 더 참담한 현실은 그 남편과도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거나 소통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남편만 바라보고 왔지만, 남편과도 소통되지 않는 철저히 고립된 상황 속에 갇혀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관심과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교회 외에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곳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오률크회는 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을 위한 한국어 구사 능력이었다. 그렇게 성도 몇몇이 모여 한국어를 가르치며 관계

를 맺게 되었는데, 이들의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소소하게 기쁨을 안겨 줄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데, 한국어교실과 행복교실이 시작되었다. 이 사역은 2011년 설립된 오률크제한가족센터의 기반이 되었다.

이후 행복교실의 프로그램은 더욱 다채로워졌다. 성도들의 재능기부로 비즈, 꽃꽂이, 퀵트, 뜨개질, 댄스, 오키나와, 요리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졌다. 성도들은 프로그램을 섬길 뿐 아니라, 때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친정엄마, 때로는 친구, 때로는 선생님이 되어주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성도들의 따뜻한 환대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들에게 복음이 스며들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정체성 혼란을 겪는 자녀 사역

결혼이주여성들과 더욱 가까이 지내며 함께하다 보니, 이들의 자녀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영유아기 때 아이들은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다니고, 한국어를 배우고, 사회성을 가지게 되면서 아이들은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당연히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에 빠졌다.

아이들이 베트남, 중국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엄마의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자녀의 눈에는 대개 엄마의 나라는 먼 타국이고, 엄마는 말이 어눌한 가난한 나라 사람으로 보일 뿐이다. 그래서 엄마가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런 엄마의 자식인 자신도 괜히 한국 아이들 사이에서 주눅이 들고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다. 더욱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하게 될수록 엄마와의 소통의 부재는 심화된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되면 종종 부모와 자녀 간 더 큰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오률크회가 찾은 방법은 엄마에게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는 아이와 엄마 사이의 간격을 줄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외국인인 데서 오는 이질감과 열등의식을 해결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엄마의 모국에서 온 유학생을 아이들의 멘토로 세워

오률크회에는 7개의 언어 예배가 있는데, 예배부의 성도 중 유학생도 다수 있다. 한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은 그 나라의 엘리트들이다. 앞으로 그 나라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사람들이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 유학생은 지혜로우며, 활력 있고,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다. 오률크회는 이들에게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불러넣어 주었다. 유학생들은 곧 아이들에게 자신의 모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일에 기



To-Plate

천혜지역 호주의 먹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원하며, 식탁을 풍성하게 합니다.

전 세계 가족들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To-Plate는 한국에서도 직접 구매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문의 010-6342-0691



At To-Plate, you will learn unique stories of passionate Australian producers and be able to buy their artisan food & beverage products via our online grocery store. The best part? We'll deliver the treats to your door.



꺼이 동역하기 시작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한국의 미래이기도 한 동시에 이들 나라의 미래이기도 하다. 많은 유학생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 가르쳤다.

유학생들을 만난 아이들은 엄마의 나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벗어 던질 수 있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바라본 유학생들은 소망 없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롭고 인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아이들은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자신과 엄마를 이상한 사람이 아닌, 글로벌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해를 거듭하면서 점차 성장한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소통을 돕는 역할을 자처하며 가정이 하나 되는 데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잘한다. 그래서 아이들과 한국인 성도들 간의 소통은 결혼이주여성들과의 소통보다 원활하다.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아이들의 아빠의 존재에도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다.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화목해야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가정에 아픔이 있었다.

외로운 것은 한국인 남편도 마찬가지

오률통제한가족센터는 그동안 결혼이주여성들의 입장에서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들어왔다. 상담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가정의 문제라는 것이 한쪽에서 풀다고 풀리는 것은 아니었다. 문제의 원인도 한쪽에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

오률통제한가족센터 공동체 모임 등(첫째 줄),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행복교실을 비롯한 손뜨개 교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이중언어학교 줌 수업, 크리스마스 모임(둘째 줄), 결혼이주 부부 모임과 코로나 구제사역, 어린이 사역 모습 등(셋째 줄) ©오률통제한가족센터

면 남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무엇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오률통교회는 남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남편들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마음만 연다면 더 쉽게 소통할 수 있었다. 교회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었지만, 센터라는 이름 때문에 대부분 마음을 열고 환대해 주었다. 남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부분 다문화 가정에 대해 교육받거나 상담받은 경험이 없었다. 그들도 아내를 데려와서 아들, 딸 낳고 알콩달콩 살 것이라는 나름의 환상이 있었는데, 아내들이 겪게 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언어적인 장벽, 문화 차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커서 어려움이 있었다. 특별히

이러한 문제는 고부간의 갈등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한국인 가정에서도 고부간 갈등 문제로 남편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매우 크다. 그런데 아내가 언어와 문화가 다를 때, 남편들은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결국 고부간의 갈등이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더군다나 다문화 가정 남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고 공감해 줄 곳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률통교회는 이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해주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그렇게 남편 모임이 시작되었다. 다문화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이나 소소한 기쁨들을 나누면서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 남자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멘토가 되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남편 모임의 주 사역이다.

오률통제한가족센터는 이외에도 부부세미나, 자녀양육 세미나, 가정상담, 언어치료, 미술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총체적 가정 사역에 힘을 다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외국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각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신다. 진정한 가정의 회복은 각 가족 구성원의 회복에서 시작된다. 한국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109만여 명이나 되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이 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지고, 온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글로벌한 다음세대들이 일어나길 소망한다.



KALAYAAN CYBER CHRISTIAN NETWORK

KCCN은 미디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섬깁니다

미디어, 온라인은
흠어진 자들이 연대하고 훈련하며 사역할
효과적인 채널입니다.

WWW.YOUTUBE.COM/C/KALAYAANCOMMUNICATIONNETWORK
WWW.FACEBOOK.COM/KALAYAANCN

ghjeong@gmail.com

페루에서 온 사무엘 형제

신장암 투병 사무엘 형제 위한 따뜻한 손길 요청

한국 생활 21년째, 페루 돌아가도 돌봐줄 가족 없어



임기본 선교사(좌)와 수술 전 사무엘 형제(우)/수술 후 입원 중인 사무엘 형제

페루 출신 사무엘(69) 형제는 1999년 한국에 노동자로 입국하였다. 어머니와 두 형제가 지독한 가난으로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족들 곁을 떠나자, 그는 결혼도 포기하고 남은 형제들의 삶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고 지구 반대편 한국행을 선택하였다. 기독교인인 사무엘 형제는 10년간 수입의 절반을 자국의 형제들에게 보내면서, 남미인들의 스페인어 예배 공동체에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였다.

고국으로 막 돌아가려는 즈음, 그는 신장 이상증세로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다. 그러나 너무 늦게 병원을 찾은 탓에 소변 주머니를 차고 다닐 만큼 신장이 악화됐고, 6시간마다 복막투석을 받아야만 했다. 이주민들에게 가장 인도적인 적십자병원의 도움으로 한동안은 실비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지속적인 도움은 받을 수 없었다. 그동안 그가 모아 놓은 돈은 이미 병원비로 다 지출했고, 결국 병원에서 강제퇴원을 당하기에

이르렀지만, 중증환자인 그를 받아 줄 곳은 어느 곳도 없었다. 그가 가진 질병이 완치될 수도 없을뿐더러, 일을 못 하면서 불법체류자가 되자 그의 병원비를 어떤 기관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서 찾은 곳이 '함께하는 이웃'이 운영하는 쉼터로, 벌써 7년째 머무르고 있다.

작년엔 복막이 얇아져 더는 복막투석을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혈액투석을 위한 AVF수술을 순천향대학병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함

께하는 이웃 임기본 선교사는 수술에 앞서, 앞으로 혈액투석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사무엘 형제를 합법 체류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무엘 형제가 안전하게 자국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 수없이 페루대사관을 방문하며 상담했지만, 페루에서도 그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것을 알고 임 선교사는 한국에서 그를 끝까지 돌보기로 했다.

임 선교사가 출입국사무소를 수도 없이 드나들며 발로 뚫고 합법체류자가 된 사무엘 형제는 병원 치료를 마음 놓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주일에 3번씩 쉼터가 있는 인근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던 그는 설상가상으로 4년 전 신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사무엘 형제를 임 선교사가 끝까지 설득했고, 결국 분당차병원에서 지난 8월 11일 오후 3시부터 12일 새벽 3시까지 장장 12시간이 넘게 신장암 수술을 받았다. 지난 8월 26일 퇴원한 그는 현재 혈

액투석이 가능한 광주 초월의 위더스요양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지금까지는 주변의 도움으로 사무엘 형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여전히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기본 선교사는 사무엘 형제와 같이 질병과 사고로 계속 노동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을 찾고, 그들을 돕기 위해 사단법인 함께하는 이웃(www.m-mission.org)을 설립했다. 함께하는 이웃은 이주자남자쉼터(성남), 다문화여성쉼터(경기 광주), 이주자와 다문화상담센터(경기 광주)를 운영하고, 다문화위기 가정 긴급의료비와 생활비 지원(전국) 등 4가지 목적사업을 펼치고 있다.

(후원 문의: 사단법인 함께하는 이웃 031-765-2309, 임기본 선교사 010-5403-0658 / 카카오톡 채널: '함께하는 이웃')

이주민 사역 파트너
diasporanews.kr

캄보디아에서 온 분 찬다라 형제

찬다라 형제 위해 기도 요청

수술 후 심각한 체중 감소, 추가 치료는 엄두를 못 내



현재 투병 중인 분 찬다라 형제 그리고 건강할 때의 모습



캄보디아 출신인 분 찬다라(31) 형제는 경기도 군포에서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다. 입국 당시에는 건강한 청년이었던 그는 종종 위장에 불편함을 느꼈으나, 병원 진료에 부담을 느껴 미루다 결국 상태가 악화됐다.

찬다라 형제는 얼마 전 심한 위통으로 급히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1개월 넘게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심각한 체중 감소로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찬다라 형제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데도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추가 치료는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다. 찬다라 형제를 돕기 원하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병원 치료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후원금을 보내면 된다.

(분 찬다라: 010-9675-9544 / 신한은행 110-404-298822 분 찬다라)

임진숙 기자
divinegrace2237@gmail.com

이주 여성들의 솔직한 토크!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소통방송 ‘행복한 수다’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들의 희로애락 나눠
코로나와 육아로 힘든 청취자들, 방송 통해 위안”



김소영 아나운서 (전문 MC)

은 지지와 공감을 얻었다.

2016년 3월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현재 시즌 4까지 오면서 ‘행복한 수다’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한국 사회와 소통하는 방송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행복한 수다’의 전문 MC 김소영 아나운서를 대표로 인터뷰했다.

“현재는 몽골, 일본, 중국, 네팔에서 온 4분이 함께하고 있어요. 전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분도 함께했었어요. ‘행복한 수다’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 태어난 나라에 상관없이 연락해 주시면 게스트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수다’를 하게 되신 계기가 있습니까?

“아는 분이 소개해주셔서 함께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란 생각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는 건 어느 나라나 비슷하더라고요. 방송을 하면서 다른 문화에 대해 알게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는 점도 많았고요. 지금은 서로 언니, 동생 하는 사이로, 오히려 방송 없을 때는 보고 싶어질 정도로 친해졌어요. 세계는 하나라는 걸 느낍니다.”

▶출연진을 소개해주세요.

▶‘행복한 수다’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수다’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겪는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팟빵에서 ‘행복한 수다’를 검색하면 들을 수 있어요.”

▶‘행복한 수다’에 출연하시는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출신 국가는 몇 나라 정도 되나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결혼이주 여성이 13만7,000명(2019년 법무부 통계)이 넘는다. 이들이 낯선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겪게 되는 언어, 문화, 생활, 직업, 육아 등에 관한 사연을 나누고 공감하는 장이 더 많이 필요한 시절, 성남시 라디오 프로그램 ‘행복한 수다’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직접 출연하여 소통하면서 비슷한 상황의 결혼이주여성들로부터 많

“코로나로 인해 요새는 녹음을 6명이 못 하고 3명씩 나눠서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김소영) 진행하고 남경민님(몽골), 미도리 님(일본)이 녹음하고, 내일은 김희경 님이 진행하고 상미하 님(중국), 김수진 님(네팔)이 함께합니다.”

▶매회 주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의해서 정하는데요, 계절이나 날씨에 관한 이야기부터 명절 보내기, 학교 교육이나 육아 이야기, 어려운 한국어, 태어난 나라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방송하시면서 어떤 때 보람과 기쁨을 느끼나요?

“개인적으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될 때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한데요, 코로나 시기에 또는 육아로 힘들 때 ‘행복한 수다’를 듣고 위안을 얻었다는 청취자분들의 이야기에 보람을 느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낯선 나라에 와서 혼자라는 생각보다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행복한 수다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들으면서 위안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수다’ 출연진들 ©‘행복한 수다’

월드휴먼브리지 제113회 온라인 모아사랑 태교음악회 개최

행사 후 다문화가정 임신부 찾아
출산용품과 경품 전달해...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휴먼브리지(대표 김병삼 목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신부들에게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제113회 모아사랑 태교음악회’를 지난 7월 16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모아사랑 태교음악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임신부와 다문화가정 임신부, 이주가정 임신부 등에게 출산용품과 함께 행복한 태교 시

간을 선물하는 월드휴먼브리지의 여성지원사업이다.

‘괜찮아요 엄마, 잘하고 있어요’라는 주제로 열린 모아사랑 태교음악회는 ‘자존감 수업’ 저자 윤홍균 정신건강 의학과 원장과 밴드 W24, 클래식 연주단 M.Classic, V.O.S 박지현이 출연했으며, 개그맨 김경아와 전 KBS 아나운서 이정원이 진행을 맡았다. 윤홍균 원장은 ‘건강한 애착

과 사랑’을 주제로 곧 태어날 아이와의 건강한 애착을 고민하는 임신부와 어려운 상황에서 출산을 해야 하는 엄마들을 위로했다. 이어 월드휴먼브리지의 홍보대사 W24는 응원 메시지와 함께 신곡 ‘어린 날(Once Upon A Time)’로 세련된 태교의 시간을 선사했다. 연에게 대표 다동이 아빠로 알려진 V.O.S 박지현은 대표곡인 ‘큰일이다’와 이선희



다문화가정 임신부들에게 출산용품이 전달됐다. ©하소미 기자

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를 열창하며 시청자들을 축복했다.

월드휴먼브리지 김병삼 대표(만나교회 담임목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요즘,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전국에서 4백여 명의 임신부가 실시간으로 함께 한 이번 음악회는 남양유업의 출산용품 후원과 해피빈을 통한 KT&G 임직원의 기부까지 더해 풍성한 출산용품과 경품을 임신부들에게 전달했다.

하소미 기자
hexiaomei@naver.com

사단법인 올프렌즈 사역소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주노동자와 함께, 결혼 이주민과 함께”

글 주경천 목사



올프렌즈 주경천 대표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요삼 1:5)

우리나라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이주민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2010년 6월 5일 설립된 사단법인 올프렌즈는 2014년 4월에 외교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인허가를 받고, 현재 6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올프렌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캄보디아예배, 베트남예배, 어린이예배를 드리며, 매주 성경공부를 통한 리더 훈련과 나라별 자조모임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키우고 있다.

또한 저개발국가와의 민간 교류 사역의 일환으로 캄보

양육 받은 현지인들이 신학대에 진학해 동역자로, 리더로 성장



성만찬 예식이 진행되고 있다. ©올프렌즈

디아의 ‘감뽕잠 마을’ 어린이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며 마을 전도에 힘쓰고, 베트남 ‘떠이는 마을’의 난민 어린이들에게는 급식을 지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교육 및 복지 지원 사역으로는 이주민 친구들이 한국 생활에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적응을 위해 한국어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본국으로 귀환하여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컴퓨터, 바리스타, 이미용, 공예 교육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급식, 쉼터, 의료 지원, 직장 문제 등

한국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상담하는 봉사와 구호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 사역의 열매를 계속 맺는 은혜 체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위해 달려온 2021년 현재 올프렌즈는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구촌에 찾아온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선교 사역은 많이 어려워졌고, 올프렌즈 역시 대면

예배 대신 온라인(Zoom, 페이스북 라이브) 예배를 드리는 실정이다.

온라인 예배는 본국으로 귀환한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는 유익함도 있지만, 믿음의 뿌리가 미쳐 내리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심방 환경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연락도 없이 본국으로 귀환한 친구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인들의 삶도 팍팍해졌듯이, 이주민들에게도 일자리가 줄고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올프렌즈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주민 친구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가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있다. 올해로 사역 11년 차를 맞아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역에 힘을 낼 수 있는 은혜의 열매를 많이 목도하고 있다. 올프렌즈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친구들이 캄보디아 라이프대학 신학과에 4명, 서울신학대학 신학과에 1명이 입학하는 등 사역의 동역자로 성장하였다. 또 감뽕잠 마을에서 양육 받은 3명의 친구가 프놈펜장로회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입학하여 믿음의 리더로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

비대면 시대의 예배가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주민 친구들이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아울러 올프렌즈 복음의 사역에 함께하는 동역의 손길과 섬김의 참여가 더욱 풍성해지길 기도하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주민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분에게 가득하시길 소망한다.

(후원계좌: 농협 301-0141-3308-51 / 홈페이지: www.allfriends.kr)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Manna Mission Plan

MMP(Manna Mission Plan) 6기, MMP-W 3기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6기 선발

1 모집부문 및 지원내용

부문	대상	지원내용
국내 MMP	일반지역교회	아래 첨부
이주민 MMP-W	교회지원	
	기관지원	
	이주민선교 관련 기관	

※ 부문 및 대상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내 MMP**
- ① 재정지원 2022년 1월부터 월 100만원의 사역 지원
 - ② 인적지원 만나교회 교구(동산), 청년부, 선교팀 자매결연 - 예배 참석 및 전도대, 단기선교, 교회행사 지원
 - ③ 목회지원 김병삼 담임목사와 함께하는 MMP 정기모임, 만나교회 7대 사역 매칭, 영성훈련(BTD, MDTs) 등 훈련지원
- MMP-W**
- ① 재정지원 2022년 1월부터 월 100만원(기관은 50만원)의 사역 지원
 - ② 인적지원 만나교회 외국인 선교부 위원회, 선교팀 및 청년부와 자매결연
 - ③ 선교지원 선교지와 사역 네트워크 및 추후 선교 센터 사역 연계

2 선발과정

- ① 서류접수마감 9월 25일(토)까지 이메일 접수 및 MMP 실무팀 앞 등기소인 해당일 까지
국내 MMP mannmissionplan@gmail.com / 이주민 MMP mannmissionplanw@gmail.com
- ② 서류접수내용 **국내 MMP**
 - ① 기본신청서(신청서는 만나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② 목회계획서(MMP선발이 되었을 경우, 만나교회와 함께할 오프라인 사역 및 온라인 사역에 대한 계획)
 - ③ 프리젠테이션 PPT(교회소개, 코로나 기간 중 진행했던 오프라인 사역 및 온라인 사역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장비 운용 여부)**MMP-W**
 - ① 기본신청서(신청서는 만나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② 사역소개서(교회 소개 및 사역 소개 포함 / 기관인 경우는 사역 소개 포함)
- ③ 서류접수결과 2021년 10월 2일(토) 만나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현장실사와 최종선발 세미나 (2021년 10월 중순 예정)를 거치면서 부적합할 경우 차점자를 통한 추가선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④ 최종선발발표 2021년 11월 7일(주일) 만나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2022년 1월 이후 지원이 시작됩니다.

만나교회
담임목사 김 병 삼
1344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53
Tel 031-706-3351-8 / Fax, 706-3350
www.manna.or.kr

일본 히카리복음교회 사역소개

“황금 어장에 그물을 던져라!”

글 최남도 선교사

일본 내 외국인 288만
이주민 선교 여력 없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막 1:17)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은 어떤 나라일까?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낙동강의 한 지류가 흘러 들어가는 강이 있었다. 그 강가에서 큰 것은 쫓지만 한 하얀 은어 떼가 무리 지어 헤엄치고 다니는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아주 깨끗한 물에만 사는 수박 향기 나는 은빛 고기가 바로 은어이다. 투망이나 족구라는 어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은어들을 잘 잡았지만, 그런 도구가 없는 어린 우리들의 눈에는 정말 잡고 싶었지만 잡을 수 없었던 탐스러

운 고기떼였다. 물론 우리가 가진 어구와 실력으로 몇 마리 정도 잡기는 했지만.... 나는 일본을 바라보면서 그 시절 그 소년의 마음과 시선을 항상 떠올린다.

일본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역사적으로 참 불편한 나라이기도 하다.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일본인지도 모른다. 우리 가족은 1998년부터 일본 선교사로 오게 되었다. 일본에서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고 지금도 배우며 살아가고 있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일본과 일본에서 살면서 알아가는 일본은 다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보는 일본은 또 다르다.



일본 히카리복음교회 최남도 선교사 가족 사진



히카리복음교회에서 네팔예배를 드리는 모습 ©히카리복음교회

일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통계에 따르면 85만 명 정도이다. 일본교회는 8,000여 곳이 있고, 그중 목사가 없는 무목교회가 약 1,000곳 정도 된다.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는 대략 1,500명으로 추산한다.

필자는 현 상황에서 일본 선교에 가장 적합한 민족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은 훈내(本音, 속 마음)와 타테마에(建前, 겉 태도), 즉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성숙한 인격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민족을 이해할 수 있고, 잘 대처하며 선교할 수 있는 민족은 한국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메말라 버린 인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넘치는 사랑과 인정을 가진 민족도 역시 한국인이다. 기독교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한국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한

국이 일본을 선교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역하는 곳은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고에시 외곽지역이며, 필자는 이곳에서 히카리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다. ‘히카리’는 빛이라는 뜻이다. 성도는 일본인, 한국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일본어 예배(주일 오전 10시 30분)와 한국어 예배(주일 오후 2시)를 따로 드린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네팔인들이 일본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모두 직장에서 일하는 이들이었는데 일본어를 잘 알아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영어로 통역을 해주기도 했지만, 영어를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2020년 10월부터 네팔 예배(주일 정오) 시간을 따로 만들어 네팔어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도록 했다. 최근에는 네팔 형제 2명을 리더로 세워 예배사역을 맡겼는데, 잘 인도해 주고 있다.

일본 정부가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을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일본에 외국인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2020년 6월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88만 5,904명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이주민 선교를 위한 대책과 계획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교회나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당한 현실이 절박한 관계로 이주민 선교까지 생각이나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선교의 황금어장’이다. 좋은 물고기가 떼를 지어 다니고 있다. 전도나 선교를 못 하는 것은 물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어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 나와 동료의 배에까지 이 아름다운 일본 물고기를 가득 채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예손치과의원

Since 1997

Jesus' hands Dental Clinic



원장 이 상 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8-3
유성트윈동관 304호 (서현역 이매촌 출구)

Tel. 031-704-2888

Fax. 031-704-2886

Mobil. 010-5704-2088

E-mail. matw2@hanafos.com

성실하게 한결같이 가족처럼 섬기겠습니다

전국 이주민 예배시간 안내

» 암미선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36번길 24/ T. 031-571-6554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김영애 선교사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토요기도회	토요일 오후 7:00		

» 열린열방선교교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1길 31/ T. 031-506-6044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정진학 목사
태국인예배	주일 오후 2:00		

» 수원중앙침례교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8/ T. 031-229-9000 온오프라인 동시 예배
www.central.or.kr

구분	시간	대상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한국인	박승찬 전도사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한족	양아진 전도사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인	잡할란 전도사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한국인	김진완 목사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인	원중빈 전도사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러시아인	김빅토르 목사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1:30	네팔인	산제이 전도사

» 하이웃 센터(Hi-Neighbor Center)

경북 경주시 한빛길 23 (3층)/ T. 054-772-0691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예배실	김조훈 목사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모임	금요일 오후 6:30		

» 사단법인 올프렌즈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11번길 2/ T. 031-762-2679/ www.allfriends.kr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캄보디아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8:00	예배실	남궁성 목사
캄보디아주일예배	주일 오후 12:40		
베트남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9:00		

» 오륜교회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35/ T. 02-485-4004/ www.oryun.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제1교육관 4층 다윗홀	박지윤 전도사
중국어예배		본관 7층 다니엘홀	유요셉 목사
일본어예배		제1교육관 3층 요셉홀	이슬기로 목사
인도네시아어예배		오륜지역아동센터	테오피릴라 전도사
러시아어예배		오륜국제한가족센터	임혜림 목사
베트남어예배		제1교육관 2층	차순현 목사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오륜국제한가족센터	흰튀탄튀 전도사

» 새중앙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 T. 031-425-3000/ www.sja.or.kr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선교센터 3층 301호	크리스토퍼리 전도사
어린이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선교센터 3층 301호	유요셉 목사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교육관 3층 고등부실	위다니엘 목사
어린이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교육관 3층 유년부실	테오피릴라 전도사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0:30	비전센터 4층 가운데 402호	응웬시푸 목사
인도네시아예배	주일 오전 10:30	비전센터 4층 가운데 403호	요하네스 목사
북한선교예배	주일 오전 10:30	선교센터 3층 302호	유혜란 목사
중국동포예배	주일 오전 10:30	비전센터 5층	김옥환 목사
몽골예배	주일 오후 2:00	비전센터 4층 가운데 402호	델게레흐 전도사
일본예배	주일 오전 10:30	선교센터 3층 303호	남인 목사

» 고현교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11길 17-7/ T. 055-635-5511/ www.gohyun.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후 1:10	본당 평강홀	최윤갑 목사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바울관	강민환 목사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비전센터 바울관	강영애 사역자

» 예승센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로 38-4 무지개 아파트 505호/ T. 010-5541-4891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예배실	박성규 선교사
네팔여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기도회	토요일 오후 9:00		

※ 이주민 예배 안내를 원하시는 교회들의 문의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희희양락

최양락 팽현숙의
1호 요양원!



스칼라요양원

031-8045-9980

경기도 의왕시 갈미2로 40, 6층(내손동, 캠퍼스프라자)



전국 이주민 예배시간 안내

» 꿈의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 T. 031-409-9191 / www.dream10.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B1 Event Hall	현한나 목사

» 대청글로벌미션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83 동행빌딩 5층/ T. 051-515-0191/ www.dgmc.co.kr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중국유학생예배	주일 오후 5:00	예배실	유근영 목사

»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안산지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213-1 4층/ T. 031-492-2645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인도네시아인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페이스북 생방송	정상엽 목사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00	Zoom 예배	
토요일예배	토요일 저녁 8:00	예배실	

» 새생명태국인교회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5 지하1층/ T. 070-7019-7792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홍광표 목사

» 신창비전외국인교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54/ T. 010-2287-9643

<https://www.facebook.com/groups/1616235851794814/>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박다니엘 목사
청소년예배	주일 오후 2:00		
아침기도회	월~금 오전 6: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10: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 아시아인마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5 한양빌딩 1층/ T. 031-753-0688/ www.ainma.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대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조혜숙 목사
아침 특별기도회	주일 오전 10:00		

» 이주민월드비전센터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로 200/ T. 010-3198-9329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예배실	이익성 목사
다국적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1: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3:00		

» 글로벌비전센터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4 아놀노타워 B1/ T. 010-2875-9639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문성주 선교사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5:30		

» 네팔노동자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26-1/ T. 070-8222-8345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예배실	이종만 목사

» 위디국제선교회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T. 031-468-9191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카메룬예배	주일 오후 4:00	산소망교회	Jennet Eledi 목사
중보기도회	토요일 오전 10:00	ZOOM	임진숙 목사

화상영어 스피킹 JD CLASS

초.중.고 대학생, 성인 기초
누구나 가능한 영어SPEAKING TRAINING (1:1 화상영어)



네이버 검색 : 제이디 클래스 (native05.com)
하루 25분, 주3회, 4회, 5회수업 문의 : 010-4616-1913

Jewish Voice
Ministries International



Jewish Voice Ministries International, Korea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여러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JVMI Korea는 특히 에티오피아와 짐바브웨를 주목합니다.
복음을 담아 구제하며 기동성이 빠른 이동클리닉을 통해
치과, 안과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육체적 필요를 지원하며
예수의 사랑과 소망을 나눕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ww.jvmikorea.org

한국교회 다문화 신학을 고민하다

다문화신학연구소, 다문화 신학 세미나 개최

Covid-19 이후 선교의 방향성으로 다문화 사역, 곧 국내 이주민 사역과 난민 사역이 한국선교의 주된 관심사가 된 가운데 다문화신학연구소(소장 이정혁 박사)는 지난 8월 19일 온라인 줌으로 다문화 신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정혁 박사(좌), 이오갑 박사(우)

KC대학교 학술연구소장이자 조직신학 교수인 이오갑 박사는 이날 강사로 나서 '한국교회 다문화 신학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다문화 신학 용어와 개념, 그리고 창조의 관점과 타락의 관점, 구속의 관점에 대해 강의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정노아 목사, 문성주 목사, 박찬식 소장, 허은열 목사 등 이주민 전문사역자들이 한국교회가 왜 다문화 선교를 해야 하는지, 다문화 선교를 성경적,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립해 나갈지 등에 관해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다문화신학연구소는 오는 9월 2일에도 연이어 다문화 신학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은혜와평강교회, 국외 단기선교 대신

국내 이주민 선교로 전환기로



가나안교회, 글로벌비전센터, 송우벳사랑교회(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에서 진행된 이주민 선교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은혜와평강교회(이종용 담임목사) 내 청년부는 매년 국외로 가는 단기 선교를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 이주민 선교로 전환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흠어져 복음을 전하듯 은혜와평강교회 청년부 성도들은 올해에도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4명이 한 팀을 이뤄 세 곳의 사역지로 파견됐다.

올해는 주로 인도와 네팔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이는 경기도 광탄 소재 가나안교회(김성덕 선교사), 서울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모자이크 공동체를 지향하는 낙성대역 부근 글로벌비전센터(문성주 선교사), 베트남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섬기는 경기도 포천 송우벳사랑교회(안정호 선교사)에서 사역을 했다.

은혜와평강교회는 "사역 내용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함께 예배하고 음식을 먹으며 이주민들과 가장 중요한 친교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주민 사역이 선교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여 사람을 세우는 준비의 과정이 되고, 무엇보다 지역교회들과 더불어 선교의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길 소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교타임즈 300호 기념행사 열려

국내 대표적 선교 월간지 25년 역사



KWMA 사무실과 온라인에서 병행하여 열렸다. ©KWMA

선교타임즈(발행인 김성용 목사)는 8월 19일 300호 기념 예배 및 행사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실과 온라인(유튜브, 줌)에서 병행하여 진행했다.

국내 대표적 선교 월간지인 선교타임즈는 지난 25년간 한국 문서선교에 기여했다. 또 고 랄프 윈터가 이끈 프론티어 벤처스(구 USCWM)의 국제전방개척선교저널(IJFM)의 자매지인 전방개척선교저널(KJFM)을 격월로 발행하여, 전방개척선교를 지향하는 세계 선교 흐름을 한국교회에 알려왔다.

1부 기념예배 이후 기념 강연은 김학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이상준 아시안미션 대표가 각각 '한국선교의 방향과 문서선교', '교회, 선교단체, 플랫폼(의사소통을 중심으로)'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포럼은 '선교타임즈 300호 기념을 중심으로 본 문서선교'를 주제로 5가지 발제가 있었고, 좌담회는 '문서선교의 상황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발전적 대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로잔 디아스포라 온라인 회의

2021 '팬데믹, 이주 그리고 선교'



전 세계에서 약 40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로잔디아스포라·GDN(Global Diaspora Network)은 팬데믹 상황에서의 이주와 선교에 관한 글로벌 회의인 '로잔 디아스포라 온라인 회의'(Lausanne Diaspora Virtual Summit 2021)를 지난 25일 진행했다.

전 세계에서 약 4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 시간 동안 열린 이번 회의는 패트릭 핑, 미리암 에드니 등의 국제적인 강사들의 의미 있는 제안과 강의가 매우 가치가 있었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는 지역교회마다 선교 참여를 가능케 하는 기회가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해 미국 CGN 방송은 강의마다 한글자막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어로 인한 어려움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GDN 부대표로 섬기는 문창선 선교사와 이슬람연구소 소장인 현한나 교수가 호스트가 되어 한인 참가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였다.

2021년 제3회 KUPM 대학교수선교사

및 단기선교학교 9월 25일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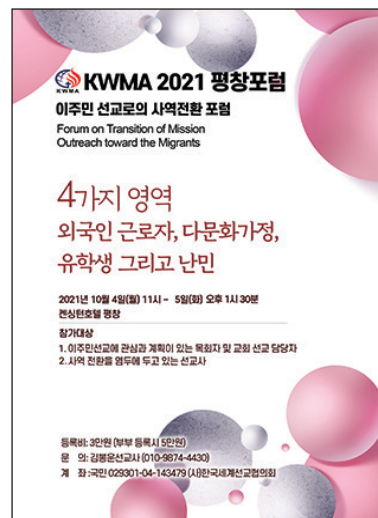
오는 9월 25일부터 KWMA 연합선교훈련실행위원회와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KUPM)가 공동 주최하는 '2021년 제3회 KUPM 대학교수선교사 및 단기선교학교'가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 과정은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수 선교사로 훈련하거나 타문화권 대학교에 교수 요원으로 참여하여 선교사로 살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100만 자비량 선교사 성취를 위한 사례를 발굴하고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강사로는 강대흥 목사, 조용성 목사, 이수구 선교사, 황홍섭 교수, 한정국 목사, 남명현 선교사, 손창남 선교사, 김요한 선교사, 문창선 선교사, 이용웅 선교사, 조명순 선교사, 김영휘 목사 등이 나선다.(문의 서정호 목사 dovere@daum.net)

KWMA 2021 평창포럼 10월 4~5일

'이주민 선교로의 사역전환 포럼'



KWMA 2021 평창포럼 '이주민 선교로의 사역전환 포럼'이 오는 10월 4일 오전 11시부터 5일 오후 1시 30분까지 캔싱턴호텔 평창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 다문화 가정, 유학생, 난민 등 4가지 영역에서 발제와 자유 토론, 멘토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 코디네이터 홍광표 목사(새생명태국인교회)는 "이번 포럼에 참여하는 모든 분이 국내 이주민 사역은 곧 세계선교라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이주민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교회와 선교 사역을 전환하려는 선교사님들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주민 선교를 통해 세계선교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현장을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의 선교 완성을 위해 온전한 선교 연대를 이루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문의 김봉운 선교사 010-9874-4430 / 등록비 3만 원, 부부등록 시 5만 원)

복음의 통로인 디아스포라 사역 위한

느헤미야 기도회

예성선교센터 느헤미야 기도회는 12명의 소그룹이 온라인으로 모여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부터 이주민을 위한 기도까지 매주 1회 밤 9시부터 11시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디아스포라와의 교제를 통하여 긴급 기도정보를 수집하여 소책자를 만들어 하루에 2과씩 11주 코스로 기도회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이주민을 위한 기도회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은 예성선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문의 박성규 선교사 010-5541-4891)

김필립 기자
weare1in7@gmail.com

■ 알면 유용한 이주민 정책 및 사역 정보 <3>

이주민 그들은 누구인가?

◆ 취업활동과 체류자격

- 외국인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춰야 하며,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 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 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취업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자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 외 허가가 필요

· 이 경우에도 조건이 있고, 가능한 활동의 유형 및 주당 취업시간에 제한이 있음

- 체류자격 변경 허가

- 새로 종사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인 경우,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 체류자격의 변경 경로

1. 장기 체류자 → 영주 → 귀화

2. 영주

- 1) 장기 체류자 : F-5-1(장기체류)
- 2) 국민의 배우자 : F-6(결혼이민) → F-5-2(국민배우자)
- 3)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 : F-2-2(국민자녀) → F-5-3(국민자녀)
- 4) 방문취업자 : H-2(방문취업) → F-5-14(방문취업 4년)

3. 전문인력 거주

- 1) 점수제 : F-2-7(점수우수인력)
- 2) 장기 체류자 : D-1(문화예술), D-5(취재),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F-1(방문동거), F-3(동반),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7(특정활동) → F-2-99(기타장기)

3) 단순업무 취업자 :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 E-7-1(특정활동), F-2-6(숙련기능)

4. 이주민 신분별 체류자격 변경

- 1) 노동자 : E-9(비전문취업) → E-7(특정활동) → F-2-7(우수인력) → F-5(영주) → 귀화
- 2) 유학생 : D-2(유학) → D-10(구직) → E-7(특정활동) → F-2-7 → F-5 → 귀화
- 3) 난민신청자 : G-1-5(난민신청) → E-7(특정활동) → F-2-7 → F-5 → 귀화
- 4) 재외동포 : C-3-8(동포방문) → H-2(방문취업) → F-4(재외동포) → F-5(영주) → 귀화

■ 고용허가제 (고용노동부)

일반 고용허가제	구분	특례 고용허가제
일반 외국인 근로자	대상	외국국적 동포
비전문취업 (E-9)	체류 자격	방문취업 (H-2)
국가간 MOU 체결한 16개국: 필리핀,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크,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즈, 중국,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송출 국가	중국, 러시아, 우즈베크 등 구소련국
중소 제조업(노동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 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5개 업종)	허용 업종	서비스업(음식, 숙박 등 29개 업종), 중소 제조업(노동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 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공공기관 알선으로 근로계약 체결 후 입국	도입 절차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후 취업
. 전형적인 비전문 인력 도입 . 사전 근로계약체결 후 입국 . 취업업종 변경 및 사업장 변경 제	특징	. 동포의 국내 입국 및 취업활동 지원을 위해 특별히 절차 간소화 . 입국 후 취업, 취업업종 변경 가능, 사업장 변경 무제한

□ 고용허가제의 원칙

- 1) 보충성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도입 규모 및 업종 제한, 외국인 고용한도 설정,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부과

- 2) 단기 순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국내 취업활동 기간 제한, 취업 기간이 끝나면 귀국하고 새로운 근로자를 순환 고용
- 3) 투명성 및 차별금지 : 선정 및 도입과정 투명화, 외국인 근로자 기본인권 보장

- 4) 시장수요 존중 : 사업주의 수요를 반영한 도입규모 및 적격자 선정
- 5) 이동 제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주 동의하에 3번까지 변경 가능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 1) 한국어능력시험(EPS-KLT) 응시 : 200점 만점, 유효기간 2년
- 2) 건강검진(간염, 폐결핵, 성병, 매독, 에이즈 등)

- 3) 구직신청 기간에 맞춰 구직 등록
- 4) 구직자 명부(3~5배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
 - 명부에는 구직자의 키, 몸무게, 성별,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만 기재

- 5) 고용허가서를 받은 한국의 사업주가 명부에서 근로자 선택, 근로계약 체결
- 6) 취업 일정 확정 후 현지 사전교육기관에서 2주간 기본교육 이수

□ 이주 근로자 체류지원

- 1) 입국 단계 : 취업교육 서비스 제공 (한국어, 문화, 노동법상의 권리, 안전 등)
- 2) 취업 단계
 - 노동법상의 권리 보장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63개), 외국인력지원센터(39개), 콜센터 운영

- 무료 통역 서비스 제공
 - 무료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제도 운영
- 3) 귀국 준비
 - 귀국 시 준비사항(보험금 수령 방법 등)

- 설명회
- 귀국자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 지원
-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 취업알선 서비스
- 재입국 취업 기회 제공

* 정보제공: 김래산 선교사(위디국제선교회)
▶(연재)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HOME INFO.

국내 이주민 선교의 파트너
6 디아스포라신문
DIASPORANewsnewspaper

발행인 **황덕영** 목사
편집인 **문창선** 목사

편집국장 **이창배** 목사
gypy227@naver.com

총괄본부장 **이승혜** 기자
seunghyelee@naver.com

편집국 수석기자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편집국 기획부 **임진숙** 기자
divinegrace2237@gmail.com

편집국 사회부 **조훈정** 기자
chohunjung@hanmail.net

편집국 교육부 **하소미** 기자
hexiaomei@naver.com

편집국 인터넷 **민경일** 기자
piellove@naver.com

편집국 선교부 **김필립** 기자
wearelin7@gmail.com

편집국 **이상호** 객원기자
matw2@hanafos.com

편집국 **권대식** 수습기자
intruthinlife@gmail.com

편집국 **문예은** 수습기자
1215grace@naver.com

온라인 편집팀장 **김혁준** 목사
loke0114@gmail.com

행정/재정팀장 **이진아** 선교사
izina@hanmail.net

디자이너 **김기옥** 선교사
seuwandi@hanmail.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양 라0013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번지/ 새중앙교회 세계선교센타 508호
대표전화: 031-420-6311
이메일: witheeman@gmail.com

구독 및 광고문의는 항상 가능합니다.
대표전화 혹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www.diasporanews.kr

K_디아스포라의
Now & Here
<아이앤유크저널>
inuc.net

아이앤유크저널은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언론문화 사역을 펼쳐갑니다.
gypy227@naver.com

17:45

Time	Flight	Destination	Gate	Status	Time
TERMINAL 2					
17:05	AF03	Lyon	C2	Cancelled	17:20
17:10	DA1	Vienna	C4	Cancelled	17:40
17:20	DA3	Frankfurt	C1	Cancelled	17:55
17:30	DA5	Munich	D4	Cancelled	17:50
17:40	AF03	Lyon	D2	Cancelled	17:55

귀국선교사를 위한 이주민선교훈련학교

MMTS 4P



필드 선교사님들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귀국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 이주민선교에 참여케 하심입니다.

위디국제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MMTS4P를 통해 귀국 선교사님들께 이주민선교사역에 대한 이해와 방법을 제시합니다.

MMTS4P는 Prayer, Pre-Mission, Prizm, Peg 등 4가지 영역에서 10주 동안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서 로잔디아스포라 GDN과 NextMove, iCDM 그리고 주안대학원대학교에서 파트너십으로 함께합니다.

귀국선교사를 위한 이주민선교훈련학교
MMTS 4P

정부정책, 이주민신학 /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선교
단일문화권에서 행하는 타문화사역
케이스 스터디1,2 / 개인별 맞춤 선교 컨설팅
현장탐방 1,2 / 사역계획 등의 실체적인 커리큘럼

9월 5일~11월 14일 (10주간, 주일 오후7시)

장소 : Zoom온라인 / 회비 : 10만원 / 문의 : 임진숙선교사 010-7590-0691
등록 링크 : <https://forms.gle/ezVNqkTdKBfbPpZr6>



위디국제선교회



NEXTMOV



주안대학원대학교
JUAN INTERNATIONAL UNIVERSITY

DIASPORA 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WA 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KIMA